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무시된 서술로서의 취소된 서술

– 행크스의 행위 유형 명제 이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임 상 무

무시된 서술로서의 취소된 서술

– 행크스의 행위 유형 명제 이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 –

지도교수 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임 상 무

임상무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한 성 일 (인)

부위원장 강 진 호 (인)

위 원 천 현 득 (인)

초 록

피터 행크스(Peter Hanks)와 스콧 솜즈(Scott Soames)가 제시한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은 인지 주체가 수행한 인지 행위의 유형이 명제라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경우, ⟨화성이 붉다⟩란 명제는 화성에 붉음을 서술하는 행위의 유형이다. 그런데 행크스와 솜즈는 서술 행위의 본성을 서로 다르게 본다. 행크스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비중립적이지만, 솜즈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다. 행크스는 솜즈를 비판하며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진리평가가능한 순수한 서술 행위는 비중립적이다.

하지만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는 행크스의 주장은 프레게-기치 요점(the Frege-Geach point)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다. 행크스는 비중립적인 서술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곧 주장이나 판단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령 조건문을 써서 주장할 때 전건과 후건에 해당하는 서술 행위 또한 수행하므로,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면 전건과 후건 또한 주장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크스는 취소된 서술 개념을 도입한다. "취소된 서술"이란 취소 맥락 하에서 수행된 서술 행위다. 취소 맥락 하에서 서술 행위는 일상적으로 지니던 귀결들과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특히 취소된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고 주장이나 판단이 아니다.

그러나 취소된 서술에 대해서도 중립성 반대 논증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행크스는 중립성 반대 논증이 취소된 서술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 이유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소된 서술에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적용하면 취소된 서술이 비중립적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이는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라는 행크스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비중립성은 주장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취소된 서술이 여전히 주장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무시 개념을 도입하여 취소된 서술을 새롭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취소된 서술이 주장이므로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증에서 어느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인다.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취소된 서술은 행위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된 서술 행위다. 무시가 일어날 때 무시된 대상은 어떤 속성은 유지하지만 어떤 속성은 무시로 인해 잃게 된다. 전자는 무시된 대상에 대한 행위자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독립하여 무시된 대상이 지니는 속성인 반면, 후자는 행위자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존하여 무시된 대상이 지니는 속성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나는 무시된 서술이 비중립성을 유지하는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지만, 개별적인 분류의 언화 행위 및 심적 행위인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들은 잃어버린다는 점을 논증한다.

주요어: 행위 유형 명제 이론, 취소된 서술, 취소 맥락, 중립성 반대 논증, 무시된 서술, 피터 행크스

학　번: 2014-22256

목 차

서론 **1**

제 1 장 행위 유형 명제 이론과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 **5**

1.1 전통적 명제 이론과 명제의 단일성 문제 6

1.2 행크스와 솜즈의 행위 유형 명제 이론 12

1.3 행크스의 중립성 반대 논증 19

1.4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 21

제 2 장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 비판 **28**

2.1 취소된 서술에 적용된 중립성 반대 논증 29

2.2 행크스의 답변과 그 문제점 30

2.3 취소 반대 논증에 근거한 강진호의 비판 33

2.4 비판에 답하기 위해 행크스에게 요구되는 것 39

제 3 장 무시된 서술로서의 취소된 서술 **41**

3.1 무시된 서술 개념 42

3.2 무시된 서술이 지니는 속성과 잃는 속성 45

3.3 무시의 예외 54

3.4 레일란드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56

결론 **61**

참고문헌 **65**

Abstract **69**

서 론

피터 행크스(Peter Hanks)와 스콧 솜즈(Scott Soames)가 제시한 행위 유형 명제 이론(act-type theory of propositions)은 인지 주체가 수행한 인지 행위의 유형이 명제라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경우, 화성이 붉다란 명제는 화성이란 대상에 붉음이란 속성을 서술하는(predicate) 행위의 유형이다. 행크스와 솜즈는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을 전통적 명제 이론들과 달리 명제의 단일성(the unity of the proposition) 문제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했다. 두 사람에 따르면 명제의 단일성 문제란 명제가 어떻게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 설명하는 문제인데, 행크스와 솜즈는 전통적 명제 이론들이 이 문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이론들이 인지 주체와 독립적으로 명제의 진리 조건을 설명하려 하는데, 명제가 어떻게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는 인지 주체가 수행하는 표상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은 인지 주체가 수행하는 표상 행위인 서술 행위가 곧 명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적 이론과 달리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고 행크스와 솜즈는 주장한다.

그런데 행크스와 솜즈의 이론은 서술 행위의 본성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행크스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비중립적(non-neutral)이고 개입적(committal)이다. 예를 들어, 화성에 붉음을 서술한 행위자는 화성이 붉은지 여부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화성이 붉다는 입장을 택하는 개입을 한다. 반면 솜즈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고 비개입적이다. 행크스는 서술 행위가 중립적이라는 주장이 비정합적이어서 이해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중립적 서술 행위 개념이 비정합적이라는 점을 보이는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제시한다.

중립성 반대 논증에 따르면 순수한 서술 행위가 진리평가가능(truth-evaluable)하다는 점으로부터 이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 행위가 진리평가가능하면서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비정합적이다.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는 행크스의 주장은 프레게-기치 요점(the Frege-Geach point)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만약 1은 2의 배수라면, 1은 짝수다'라고 조건문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행위자는 전건인 '1은 2의 배수다'나 후건인 '1은 짝수다'에 해당하는 서술 행위 또한 수행한다. 그런데 행크스에 따르면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인 서술 행위는 일반적으로 주장이나 판단 행위이기도 하다. 전건과 후건에 해당하는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면 이 행위자는 전건과 후건 또한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프레게-기치 요점이 지적하듯 이때 우리는 전건과 후건을 주장하지 않는다.

행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소된 서술(cancelled predication) 개념을 도입한다. "취소된 서술"이란 취소 맥락 하에서 수행된 서술 행위다. 취소 맥락 하에서 서술 행위는 일상적으로 지니던 요건들, 개입들, 귀결들,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특히 취소된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고, 주장이나 판단이 아니다.

그러나 취소된 서술에 대해서도 중립성 반대 논증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행크스는 중립성 반대 논증이 취소된 서술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 이유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소된 서술에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적용하면 취소된 서술이 비중립적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이는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라는 행크스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비중립성은 주장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취소된 서술이 여전히 주장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무시된 서술(ignored predication) 개념을 도입하여 취소된 서술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소된 서술이 주장이므로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증에서 어느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취소된 서술은 행위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된 서술 행위다. 무시

(ignoration)가 일어날 때 무시된 대상은 어떤 속성은 유지하지만, 어떤 속성은 무시로 인해 잃게 된다. 나는 무시된 서술이 비중립성은 유지하지만, 주장이나 판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들은 잃어버린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1장에서는 행위 유형 명제 이론과 취소된 서술을 각각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함께 설명한다. 우선, 명제가 맡으리라 기대되는 역할들과 함께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시되어 온 전통적 명제 이론들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전통적 이론들에 대한 행크스의 비판을 통해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답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행크스와 솜즈가 각자 제시한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답하는지 설명한다. 행크스와 솜즈의 이론 사이에 있는 중대한 차이점을, 솜즈에 반대하여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는 점을 옹호하는 행크스의 중립성 반대 논증을 통해 제시한다.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는 행크스의 입장이 프레게-기치 요점과 관련해서 일으키는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크스가 도입한 취소된 서술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2장에서는 취소된 서술에 대해서도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취소된 서술을 비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미첼 S. 그린(Mitchell S. Green)과 강진호의 비판을 논의한다. 그린은 중립성 반대 논증을 취소된 서술에 적용하면 취소된 서술이 비중립적이라는 결론이 따르고, 이는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라는 행크스의 주장과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미 행크스가 취소된 서술에 중립성 반대 논증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으므로, 이 이유들이 타당하다면 그린의 비판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강진호의 비판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하나는 기술적 실수 개념과 규범적 실수 개념을 혼동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나머지 하나인 독극물 유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논증하겠다. 한편 강진호는 중립성 반대 논증을 확장하여, 취소된 서술이 주장이고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추가적으로 따라 나오는 취소 반대 논증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승택은 취소 반대 논증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취소된 서술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전제를 포기함으로써,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피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는 취소된 서술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전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포기될 수 없다는 점을 논함으로써 이 해결책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이겠다.

3장에서는 무시된 서술 개념을 도입하여 취소된 서술을 무시된 서술로 새롭게 설명함으로써 2장에서 논의한 비판에 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과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을 구별하고, 서술 행위가 무시될 때 이 행위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지만,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보이겠다.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은 무시되어 일상적 귀결들을 갖지 못하는 행위이므로,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소 반대 논증의 마지막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취소된 서술을 무시된 서술로 이해하는 나의 제안에 대한 가능한 비판들에 답하고,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에 대한 다른 대안인 인드렉 레일란드(Indrek Reiland)의 이론에 비해 내 제안이 지니는 장점이 무엇인지 논하겠다.

제 1 장 행위 유형 명제 이론과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

이 장에서는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행크스와 솜즈의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을 설명하며, 행크스의 행위 유형 명제 이론에서 취소된 서술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취소된 서술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1.1절에서는 명제가 맡으리라 기대되는 역할들과 이러한 역할들을 만족하는 명제에 관한 전통적 이론들을 설명하고, 전통적 이론들이 겪는 명제의 단일성 문제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크스가 제시한 명제의 단일성 문제란 어떻게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 설명하는 문제다.

1.2절에서는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제대로 답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제시된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을 설명한다. 피터 행크스(Peter Hanks)와 스콧 솜즈(Scott Soames)는 서로 매우 유사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단순한 명제의 경우, 명제란 행위자가 대상에 속성을 서술하는 서술 행위의 유형이다.

1.3절에서는 행크스와 솜즈가 제시한 이론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제시한다. 행크스는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솜즈는 중립적이고 비개입적이라고 주장한다. 행크스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증을 제시한다. 이 논증에 따르면, 순수한 서술 행위가 진리평가가능성과 중립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은 비정합적이므로, 서술 행위가 중립적이라는 솜즈의 이론은 비정합적이다.

1.4절에서는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겪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행크스가 도입한 취소된 서술 개념을 설명한다. 행크스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곧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명제를 주장하면서 표현할 수 있고 같은 명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행크스의 이론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크스는 취소 맥락에서 수행되어 일상적 귀결을 잃고, 주장이나 판단의 지위를 잃는 취소된 서술을 자신의 이론에 도입한다.

1.1 전통적 명제 이론과 명제의 단일성 문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명제는 언어적 표현인 문장이 아니다. 여기서 명제란 문장이 뜻하거나 표현하는 내용이다. 또한 명제는 우리가 세운 주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내린 판단의 내용이며, 우리가 품은 믿음의 내용이다. 명제는 인간의 언어와 마음에 대한 설명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맡는다고 흔히 여겨지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세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는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화성이 붉다'란 한국어 문장은 ⟨화성이 붉다⟩[1]는 내용을 표현한다. 다른 문장으로도 같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Mars is red'란 영어 문장 또한 ⟨화성이 붉다⟩는 내용을 표현한다. 두 문장은 공통으로 ⟨화성이 붉다⟩는 내용을 표현하며, 이 내용이 바로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다.

둘째, 명제는 참과 거짓의 일차적 담지자다. 어떤 명제는 참이고, 어떤 명제는 거짓이다. 그리고 명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참이거나 거짓인 이유는 바로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성이 붉다'란 문장이 참인 이유는 이 문장이 ⟨화성이 붉다⟩란 명제를 표현하며, 이렇게 표현한 명제가 참이기 때문이다. 화성이 푸르다는 주장이나, 판단, 믿음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 판단, 믿음이 ⟨화성이 푸르다⟩란 명제를 내용으로 지니며, 이 명제가 바로 거짓이기 때문이다.

[1]문장이나 심리 상태가 표현하는 내용(content)은 홑화살괄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겠다.

셋째, 명제는 명제 태도와 언화 행위의 내용 또는 대상이다. 나는 화성이 붉다고 믿는다. 나는 화성이 붉다고 상상하거나, 화성이 붉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때 내가 믿는 내용, 내가 상상한 내용, 내가 판단한 내용은 바로 〈화성이 붉다〉란 명제다. 내가 이러한 내용을 지닌 믿음, 상상, 판단을 한다는 것을 나와 〈화성이 붉다〉란 명제가 믿음이란 관계, 또는 상상, 판단이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주장할 수 있다. 내가 '화성이 붉다'는 문장을 발화하여 화성이 붉다고 주장할 때 내 주장의 내용은 〈화성이 붉다〉는 명제다.

그 밖에도 명제가 맡는다고 여겨지는 역할들은 다양하다.[2] 물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한 종류의 존재자가 모두 맡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각각의 역할을 더 잘 설명해줄 이론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역할들 중 상당수를 맡는 명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3]

명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은 명제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다른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분석철학 전통 내에서 고틀로프 프레게(Gottlob Frege) 이래로 제시된 명제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명제를 구성 요소(constituent)를 지닌 복합체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구조화된(structured) 명제 이론과 비구조화된(unstructured) 명제

---

[2]제프리 C. 킹(Jeffrey C. King)은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외에도 명제의 역할로서 다음을 제시한다(King 2014). (1) 필연성, 가능성과 같은 양상 속성의 담지자다. (2) 지각 경험의 내용이다. (3) 가능 세계를 정의해 주는 것이다. (4) 맥락(context), 대화 기록(conversational record)을 구성하는 것이다. (5) that절('Amy doubts that snowboarding is hard'에서 'that snowboarding is hard'), 지시사('That's true'에서 'that'), 'what John said'와 같은 표현, '괴델의 정리'와 같은 표현 등 다양한 표현이 지시하는 것이다. (6) 'Amy believes everything Carl said'에서 'everything Carl said'와 같은 양화사의 논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다.

[3]물론 명제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증과 반박하는 논증은 다양하지만(McGrath and Frank 2018), 이 글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겠다. 이 글에서는 명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서, 무엇이 가장 좋은 명제 이론일지에 관해 논의하겠다.

이론이 구분된다. 구조화된 명제 이론에 따르면, 마치 문장이 단어들로 구성되고 이 단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한 통사적 구조를 지니듯, 명제 또한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이 구성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한 구조를 지닌다. 이때 명제의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프레게적(Fregean) 명제와 러셀적(Russellian) 명제가 나뉜다. 다음으로, 비구조화된(unstructured) 명제 이론에 따르면, 명제는 구성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한 구조란 것을 지니지 않는다. 대표적으로는 가능 세계들을 통해 명제를 설명하는 이론과 명제가 고유한(sui generis) 존재자라는 이론이 이에 속한다.

프레게적 명제 이론은 사고(Gedanke)에 관한 프레게의 이론에서 기원했는데, 프레게의 이론에서 사고(Gedanke)는 문장의 뜻(Sinn)으로서 명제에 해당한다(Frege [1892] 1997, [1918] 1997).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뜻(Sinn)과 지시체(Bedeutung)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화성'이란 이름의 지시체는 화성이란 행성이고, 이 표현의 뜻은 지시체가 제시되는 방식(the mode of presentation)이다. 문장의 경우 뜻에 해당하는 것은 사고이고, 지시체에 해당하는 것은 진리치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 표현들이 각각 뜻과 지시체를 지니며, 전체 문장의 뜻과 지시체는 부분 표현들의 뜻과 지시체들이 어떻게 결합하였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프레게는 사고가 이를 파악(grasp)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추상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사고는 감각을 통해 지각될 수 있거나 인과 작용을 하는 물리적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소유자를 지녀야 존재하는 관념 같은 대상도 아니다. 사고는 우리가 이 사고를 파악하는지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우리의 판단과 주장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고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통해 분석된다. 우리는 사고를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한 사고가 참임을 인정(acknowledgement)함으로써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을 드러내 보임(manifestation)으로써 주장한다. 정리하면 프레게에게 사고란 우리 마음과 독립하여 존재하며 진리치를 지니는 추상적 대상이고, 이 대상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 우리의 명제 태도들이 설명된다.

러셀적 명제 이론은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이 제시한 명제에 관한 이론들 중 하나에서 기원한 이론이다(Russell 1903).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구성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한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러셀적 명제는 프레게적 명제와 같다. 그러나 러셀적 명제 이론에서는 언어 표현의 의미가 뜻과 지시체로 구분되지 않는다. 명제의 구성 요소는 지칭되는 대상과 표현되는 속성과 관계들이다. 이러한 이론은 고유 이름과 같은 표현이 대상이 만족하는 기술구의 도움 없이 대상을 직접 지칭한다고 보는 직접 지시 이론(direct reference theory)이 발전함에 따라 인기를 끌게 되었다(King 2019).

가능 세계의 집합을 명제로 보는 이론은 의미론에서 가능 세계 의미론이 성공한 후로 지지를 받는 이론이다.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외연(extension)뿐 아니라 내포(intension)를 부여하고 후자를 가능 세계로부터 외연으로의 함수로 이해한다. 이를 문장에 적용하면, 문장의 내포는 가능 세계로부터 진리치로의 함수이고, 가능 세계의 집합이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포를 명제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버트 스톨네이커(Robert Stalnaker)가 이를 옹호한다(Stalnaker 1984).

명제가 고유한(sui generis) 존재자라는 이론에서 명제는 본성상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표상하고, 진리 조건을 지니며, 이러한 사실은 명제의 구성 요소와 같은 다른 사실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로는 트렌턴 메릭스(Trenton Merricks)를 들 수 있다(Merricks 2015).

이러한 기존의 명제 이론들이 명제의 단일성 문제(the problem of the unity of the proposition)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다(Hanks 2015; Soames 2010, 2014c, 2015; King 2007). 이러한 비판들의 공통점은 첫째, 명제가 어떻게 무언가를 표상할 수 있는지, 또는 명제가 어떻게 진리 조건을 지닐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로 명제의 단일성 문제를 이해한다는 점이고, 둘째, 기존의 명제 이론들은 이 문제를 표상을 하는 인지 주체와 독립하여 설명하려 하거나, 혹은 인지 주체가 명제에

부여하는 해석에 의해 설명하려 함으로써 설명에 실패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들 중 행크스가 제시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행크스는 명제의 단일성 문제를 "어떻게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 설명하는 문제"(Hanks 2015, 42)로 정식화한다.[4] 행크스는 앞서 말한 프레게적 명제 이론이 아니더라도 전통적 명제 이론 일반이 프레게식 구도(the Fregean picture)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프레게식 구도에서는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프레게식 구도는 인지 주체가 "사고를 통해 한 것이나, 생각한 것, 말한 것"(51)에 호소하여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레게식 구도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이나 주장은 파생적으로만 진리 조건을 지닌다(42). 일차적으로 진리 조건을 지니는 것은 명제이며, 우리가 명제와 특정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판단이나 주장도 진리 조건을 지닌다. 따라서 우선 어떻게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 설명해야, 다음으로 어떻게 판단과 주장이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행크스는 이러한 프레게식 설명과는 다른 순서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크스가 보기에 자연스러운 설명은 우리가 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가 진리 조건을

---

[4]솜즈는 명제의 단일성 문제를 어떻게 명제가 지향적 속성을 지니는지 설명하는 문제로 정식화하고(Soames 2014c, 26), 제프리 C. 킹(Jeffrey C. King)은 어떻게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니고 표상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제로 정식화한다(King 2009, 258).

이렇게 정식화한 명제의 단일성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정식화된 명제의 단일성 문제와 다르다. 애초에 명제의 단일성 문제는 러셀과 프레게가 각자 제시했는데, 이는 명제의 구성 요소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이 이들을 구성 요소로 지니는 단일한 명제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제였다(Frege [1923] 1984, 390; Russell 1903, 49–50). 비록 서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킹이 지적하듯, 단일한 명제와 명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차이점 중 하나가 전자는 진리 조건을 지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임을 고려한다면, 명제와 구성 요소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명제가 어떻게 구성 요소들과 달리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종류의 문제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King 2009, 259).

지니게 된다는 설명이다(55).

행크스는 프레게식 구도에서 가능한 여러 설명을 검토하고 이들을 비판한다. 그는 우선 명제가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보는 설명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설명들은 문장이 단어들을 구성 요소로 지니듯, 대상과 속성, 또는 대상과 속성의 뜻과 같은 것을 명제가 구성 요소로 지닌다고 보는 설명이다(43).

행크스가 검토하는 첫째 설명은 구성 요소들을 원소로 지니는 집합이나 순서쌍이 명제라는 것이다(43). 행크스에 따르면 집합이나 순서쌍은 애초에 진리 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설령 지니더라도 이는 우리가 순서쌍에 진리 조건을 할당하여 지니는 것이므로, 집합이나 순서쌍은 우리와 독립하여 내재적인 방식으로 진리 조건을 지니지는 않는다(43). 그런데 프레게식 설명에서는 우리가 한 것의 진리 조건을 명제의 진리 조건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하므로, 이와는 반대 순서로 우리가 하는 할당을 통해 명제의 진리 조건을 설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크스는 첫째 설명을 거부한다.

둘째 설명은 명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원초적(primitive)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원초적 관계가 진리 조건을 설명한다는 것이다(44). 행크스는 "어떻게 우리가 사고와 발화에서 세계를 표상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돕기"(44) 때문에 우리가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초적 관계에 호소한 설명은 우리의 사고와 발화의 표상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주지 않으므로 행크스는 둘째 설명을 거부한다.

셋째 설명은 첫째와 둘째 설명과 달리 명제가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셋째 설명에서 명제란 원초적이고 고유한(sui generis) 존재이고, 본성상 진리 조건을 지닌다(44-5). 행크스는 구조를 지니지 않는 원초적 명제를 우리가 떠올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셋째 설명을 거부한다(45).

넷째 설명은 프레게의 원래 설명을 받아들여, 포화된(saturated) 구성 요소와 불포화된(unsaturated) 구성 요소를 구분하고, 전자가 후자를 포화(satura-

tion)시켜 구성 요소들로부터 명제가 구성된다는 설명이다(Hanks 2015, 48-9). 행크스에 따르면 이러한 설명은 신비롭고 은유에 불과하다(49).

다섯째 설명은 단순한 정의를 통해 순서쌍과 같은 표상적이지 않은 대상에 참, 거짓을 부여하는 것이다(54). 이 설명에서 대상이 지니는 진리 조건은 대상이 지니는 표상성과 무관한 속성들을 단순한 정의를 통해, ⟨참임⟩, ⟨거짓임⟩이란 속성들과 동일시하여 부여된다. 행크스는 이러한 설명이 사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대상이 진리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를 통해 진리치를 부여받은 대상은 "표상적이지 않은데, 참이거나 거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상적이어야 한다"(54)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설명이 실패한 데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고 행크스는 생각한다(51, 55). 프레게식 구도는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닌다는 사실이 가장 근본적이고, 다른 것들이 진리 조건을 지닌다는 사실은 파생적이라고 봄으로, 우리의 행위와 같은 명제 외부의 요소에 호소하여 명제의 진리 조건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행크스가 보기에 무언가가 진리 조건을 지니려면 이 대상은 세계를 특정하게 표상해야 한다. 또한 우리와 같은 주체 없이는 대상이 세계를 표상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행크스는 주장한다(55). 이러한 행크스의 주장이 옳다면, 명제 외부의 요소를 설명에 끌어들일 수 없는 프레게식 구도는 어떻게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를, 즉 명제의 단일성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2 행크스와 솜즈의 행위 유형 명제 이론

전통적 명제 이론들이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행크스, 킹, 솜즈는 각자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들은 표상하는 인지 주체의 능력에 기반해 명제가 지니는

진리 조건을 설명하려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 행크스와 솜즈는 인지 주체가 수행하는 특정한 행위의 유형(type)이 명제라는 행위 유형 명제 이론(act-type theory of propositions)을 제시했다. 둘의 이론은 단순한 명제의 경우 인지 주체가 대상에 속성을 서술하는 서술(predication) 행위의 유형이 명제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술 행위의 본성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이 절에서는 두 사람의 이론을 설명하고, 다음 절에서는 서술의 본성에 관한 솜즈의 입장을 비판하는 행크스의 논증을 다루겠다.

우선 행크스의 명제 이론을 설명하겠다.[5] 행크스는 판단이나 의심처럼 우리가 하는 심적 행위들이나, 주장이나 질문처럼 우리가 하는 발화 행위들을 "식별하고, 귀속시키고, 구분하고, 개별화"(29)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형이 바로 명제라고 주장한다. 행크스는 넓은 의미의 명제를 세 종류로 나눈다. 이는 각각 주장적(assertoric) 명제, 의문적(interrogative) 명제, 명령적(imperative) 명제다(26). 이 가운데 주장적 명제가 바로 진리 조건을 지니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종류의 명제를 구별하면서도 행크스는 주장적 명제를 단순히 '명제(proposition)'라고만 부르는데, 이 글에서도 행크스의 이러한 용법을 따르겠다.

행크스에 따르면 명제, 의문적 명제, 명령적 명제는 모두 우리가 수행하는 행위 사례(token)들의 유형(type)들이다. 단순한 경우, 이 행위란 대상을 지칭하고(refer), 속성을 표현하며(express), 지칭된 대상과 표현된 속성을 결합하는 복합 행위다(23).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에 따라 넓은 의미의 세 명제 가운데 어느

[5]행크스는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인 (Hanks 2002)에서 처음으로 행위를 명제로 볼 것을 제안했다. 이후 다양한 논문과 책에서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을 옹호하고 발전시켰다. 그의 이론은 발전 과정에서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취소된 서술에 대한 설명이 (Hanks 2011)과 그 이후 출판된 저작에서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나중에 바뀐 입장을 반영하고, 행위 유형 명제 이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종합된 책인 (Hanks 2015)와 그 이후에 제시된 논의를 중심으로 행크스의 이론을 설명한다.

종류에 해당하는지가 구별된다. 대상이 속성을 지닌다고 서술(predication)하는 행위를 통해 결합하면 명제이고, 대상이 속성을 지니는지 질문(asking)하는 행위를 통해 결합하면 의문적 명제이며, 대상이 속성을 지니라고 지시(ordering)하는 행위를 통해 결합하면 명령적 명제다(Hanks 2015, 24). 각각에 대해 행크스가 제시한 예를 빌려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25-6).

첫째, 오바마가 클린턴이 유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바마가 클린턴이란 대상에 ⟨유창함⟩이란 속성을 서술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클린턴이란 대상을 지칭하고, ⟨유창함⟩이란 속성을 표현하며, 이렇게 지칭한 대상에 표현한 속성을 서술하는 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행위 사례의 유형이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명제다. 이 복합 행위 유형인 명제를 다음과 같이 기호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25).[6]

⊢⟨**클린턴**, 유창함⟩

이 기호화에서 '**클린턴**'은 클린턴이란 대상을 지칭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유창함'은 ⟨유창함⟩이란 속성을 표현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는 지칭한 대상에 표현한 속성을 서술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서술 행위 유형은 언화 행위인 주장(assertion)의 사례뿐만 아니라, 심적 행위인 판단(judgment)의 사례도 포괄한다(21).

둘째, 오바마가 클린턴이 유창한지 질문하는 것은 클린턴이란 대상을 지칭하고, ⟨유창함⟩이란 속성을 표현하며, 이렇게 지칭한 대상과 표현한 속성을 질문이라는 의문적 결합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는 의문적 명제의 사례다(26).

? ⟨**클린턴**, 유창함⟩

[6]이 글에서는 행크스의 원래 기호화를 한글로 적절하게 바꾸어 제시하겠다.

이 기호화에서 '?'는 질문 행위라는 의문적 결합 방식을 나타낸다. 질문 행위 또한 다양한 언화 행위 사례와 심적 행위 사례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심적 행위인 궁금함(wondering) 또한 질문 행위의 사례다(24).

셋째, 오바마가 클린턴이 유창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클린턴이란 대상을 지칭하고, ⟨유창함⟩이란 속성을 표현하며, 이렇게 지칭한 대상과 표현한 속성을 지시라는 명령적 결합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는 명령적 명제의 사례다(26).

! ⟨**클린턴**, 유창함⟩

이 기호화에서 '!'는 지시 행위라는 명령적 결합 방식을 나타낸다. 지시 행위는 "욕구(desire), 소망(wish), 의도(intention), 요청(request), 약속(promise), 지시(order)"(24-5) 등을 모두 포괄하는 행위 유형이다.

복합 행위인 세 종류의 명제는 각각 효력적 성분에 해당하는 결합 행위, 즉 서술, 질문, 명령 행위를 구성 성분으로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서 내용과 효력의 구분은 버려진다(26).

행크스는 자신의 이론에서 명제의 단일성 문제, 즉 어떻게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 설명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두 단계에 걸쳐 제시한다. 첫째, 서술 행위 사례는 일종의 분류(sorting) 행위로서 올바름 조건(correctness condition)을 지니고, 이 올바름 조건이 바로 진리 조건이다. 둘째,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 조건을 지니기 때문에, 서술 행위 유형인 명제 또한 진리 조건을 지닌다.

행크스는 서술 행위가 분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64).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분류 행위란 사물들을 유사성에 따라 무리들로 모으는 행위다. 이때 사물들을 유사성에 따라 모으려면 유사성의 기준이 필요한데, 서술 행위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속성이다. 대상에 속성을 서술하는 행위란 그 대상을 해당 속성을 지니는 다른 대상들과 함께 한 무리로 분류하는 행위다. 행크스는 이러한 분류 행위가 심리학에서 범주화(categorization)라고 말하는 행위고, 범주화

하는 능력은 인간과 다른 여러 동물이 함께 지니는 기초적인 생물학적 능력이라고 설명한다(Hanks 2015, 64-5).

분류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판단처럼 심적으로 수행되거나, 주장처럼 언어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65). 행크스가 드는 예 가운데 하나는 대리석들을 색깔에 따라 분류하는 예다(22). 여러 대리석 중에서 녹색인 대리석만 골라낸다고 하자. 우선 대리석 하나를 집어 든다. 그리고 만약 이 대리석이 녹색이면 녹색 대리석들만 쌓인 더미에 함께 놓고, 녹색이 아니면 나머지 대리석들이 쌓인 더미에 놓는다. 집어 든 대리석을 녹색 대리석 더미에 놓았다고 하자. 이것은 집어 든 대리석을 녹색인 것으로 분류한 행위다. 같은 분류 행위를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나 언화 행위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수행하는 행위는 집어 든 그 대리석이란 대상에 ⟨녹색임⟩이란 속성을 서술하는 행위다.

행크스는 서술 행위 사례가 올바름 조건(correctness condition)을 지닌다고 주장한다(66). 우리는 서술 행위를 할 때 속성이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서술 대상을 분류하는데, 이때 속성이 제공하는 규칙이 서술 행위 사례의 올바름 조건을 결정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올바름 조건이란, 대상에 속성을 서술하는 것, 즉 대상이 속성을 지닌다고 분류하는 것은 대상이 그 속성을 지닐 때 오직 그때만 올바르다(correct)는 조건이다. 대리석을 분류하는 예를 다시 보자. 이 예에서는 ⟨녹색임⟩이란 속성이 대상들을 녹색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라는 규칙을 제공한다. 그리고 분류 행위 사례가 이러한 규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분류 행위 사례가 올바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22). 녹색 대리석을 집어서 녹색 대리석 더미에 놓는다면 이는 올바르지만, 녹색이 아닌 대리석을 집어서 녹색 대리석 더미에 놓는다면 이는 올바르지 않다(incorrect). 즉 대리석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행위 사례는 그 대리석이 녹색일 때 오직 그때만 올바르다. 그리고 행크스는 이때 올바름은 곧 참이고, 올바르지 않음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66). 따라서 올바름 조건을 지니는 서술 행위 사례는 진리 조건 또한 지닌다.

행크스는 명제인 서술 행위 유형이 서술 행위 사례가 지닌 진리 조건을 물려받는다고 주장한다. 사례가 어떤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유형도 같은 속성을 지니는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행크스는 다양한 예를 제시한다. 그는 우선 물질적 대상들이 지닌 물질적 속성을 그 대상들의 유형 또한 지니게 되는 예들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74). 개별적인 영국 국기들은 직사각형이고 여러 색깔로 무늬가 나 있는데, 이 때문에 유형으로서 영국 국기 또한 직사각형이고 여러 색깔로 무늬가 나 있다. 다음으로 행크스는 행위 사례가 지니는 평가적 속성을 행위 유형 또한 지니는 예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76). 어떤 무용 동작은 무용수들이 수행한 무용 동작의 사례들이 우아하기 때문에 무용 동작의 유형 또한 우아하다.

행크스는 진리치 또한 평가적 속성이므로 자신이 제시한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로 행위 사례에서 유형으로 물려진다고 주장한다(76). 또한 진리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진리 조건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행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서술 행위 유형은 그 사례들이 지니는 진리 조건을 물려받는다. 즉 명제는 진리 조건을 지닌다.

다음으로 솜즈의 명제 이론을 설명하겠다.[7] 솜즈는 명제가 인지행위 유형이고, 명제를 떠올린다는 것은 명제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Soames 2015, 16). 특히 단순한 명제를 떠올릴 때 수행하는 인지행위는 서술(predication) 행위다. 이를 솜즈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란 책이 있고, 〈

[7]솜즈가 인지 주체의 행위를 통해 명제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 글로는 대표적으로 (Soames 2010, 2014b, 2014a, 2015)가 있다. 그런데 솜즈는 행위를 통해 명제를 설명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행위 유형이 곧 명제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애초에 (Soames 2010, 2014b)에서는 행위자가 행위를 수행한 사건의 유형이 명제라고 주장했고, 이후 (Soames 2014a, 2015)에서 이론이 바뀌어 행크스와 마찬가지로 행위 유형이 명제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바뀐 입장이 반영된 저술을 중심으로 솜즈의 이론을 소개하겠다.

붉음⟩이란 속성이 있다고 하자. 이때, 행위자가 ⟨B가 붉다⟩란 명제를 떠올리는 것은 행위자가 우선 B란 대상과 ⟨붉음⟩이란 속성을 식별하고, B에 ⟨붉음⟩을 서술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의 유형이 바로 ⟨B가 붉다⟩란 명제다. 솜즈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어서 B가 붉다고 보거나, 시각화하거나, 상상하거나, 판단하거나, 주장하는 것 모두 B에 붉음을 서술하는 다양한 방식에 해당한다(Soames 2015, 22).

이러한 솜즈의 설명은 행크스의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행크스가 말하는 세 종류의 명제 중 주장적 명제, 즉 명제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둘 모두 단순한 경우 명제는 대상과 속성을 식별하여 대상에 속성을 서술하는 행위의 유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명제인 행위 유형이 어떻게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행크스는 일차적으로 서술 행위 사례가 올바름 조건을 지니고 이를 행위 유형이 물려받으며, 이 올바름 조건이 진리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솜즈는 행위자가 표상하므로 파생적 뜻에서 행위 또한 표상하고 따라서 행위가 정확성(accuracy) 조건을 지니는데, 이 정확성 조건이 진리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솜즈는 인지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가 표상하므로 이때 수행한 행위 유형인 명제 또한 파생적 뜻에서 표상한다고 주장한다(17–8). 예를 들어, 책 B에 붉음을 서술한 행위자는 B를 붉은 것으로서 표상한다. 즉 ⟨B가 붉다⟩란 명제를 떠올린 행위자는 B를 붉은 것으로서 표상한다. 이때 파생적 뜻에서 ⟨B가 붉다⟩는 명제 또한 B를 붉은 것으로서 표상한다. 솜즈는 행위자가 지니는 모든 속성을 그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 또한 파생적 뜻에서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행위자와 행위가 지니는 "두 속성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이를 활용할(exploit) 이유가 있을 때"(18) 이러한 파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위 유형인 명제에 대해서 솜즈가 제시한 이유는, 표상하는 행위자의 전반적인 정확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의 개별적인 발화나 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솜즈는 유사한 방식의 파생이 실제로 이뤄지는 예

또한 제시한다. 우리는 어떤 행위자가 똑똑하거나 어리석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똑똑하다거나 어리석다고 한다. 이때 똑똑하다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인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행위자이지 행위가 아니므로 일차적으로 똑똑한 것은 행위자이고 행위는 파생적 뜻에서 똑똑하다.

1.3 행크스의 중립성 반대 논증

행크스와 솜즈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서술 행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둘은 서술 행위를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인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다르다. 솜즈에 반대하여 행크스는 서술의 본성에 대한 솜즈와 같은 입장이 비정합적이라는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제시했다.

행크스의 이론에서 서술 행위란 비중립적(non-neutral)이고, 개입적(committal)인 행위다. 행크스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attribute) 행위인데, 이는 대상이 그 속성을 지닌다는 입장을 행위자가 택하는 행위이므로, 행위자는 대상이 그 속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Hanks 2015, 36). 이런 뜻에서 서술 행위는 비중립적이다. 또한 행위자는 대상이 그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 개입하게 되는데(21), 이런 뜻에서 서술 행위는 개입적이다.

한편 솜즈는 행크스와 마찬가지로 명제를 서술 행위의 유형으로 여기지만, 서술 행위가 비개입적이라며, 서술 행위의 본성에 대해 행크스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솜즈는 개입을 지니는 판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입이나 효력 없이 대상이 어떠하다고 단순히 인지하거나 상상하는 행위 또한 서술 행위의 사례이므로, 이 모든 행위 사례에서 수행되는 서술 행위는 비개입적이라고 주장한다(Soames 2015, 220).

솜즈와 같은 견해에 대해 행크스는 중립적 서술이란 개념이 비정합적이어서 이해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Hanks 2015, 36). 행크스는 특히 순수한 서

술 행위가 진리평가가능성(truth-evaluability)과 중립성을 함께 지닌다는 점이 비정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비정합성을 보여주기 위한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중립성 반대 논증'이라고 부르겠다.[8]

중립성 반대 논증은 다음과 같다(Hanks 2015, 37). 우선 다음 두 가지를 가정한다. 첫째, 인지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하는 순수한(pure) 서술 행위를 수행한다. 둘째, a는 F가 아니다. 이때 순수한 서술 행위란 "단순하고, 혼자 떨어진, 보통의"(36) 서술 행위를 뜻하는데, 이는 취소 맥락에 놓이지 않은 서술이다. 취소 맥락 하에서 서술은 단순하거나 혼자 떨어지지 않고, 조건문의 전건이 표현하는 명제처럼 복합적인 서술의 부분으로서 수행될 수 있고, 보통 서술과는 달리, 연극 무대에서 배우에 의해 수행되거나, 가언적 추론을 위해 가정을 세우면서 수행될 수 있다. 이제 두 가정으로부터 다음이 차례대로 따라 나온다.

1.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3. S는 실수를 저질렀다.

4. S는 a가 F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음에 틀림없다.

5. S의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지 않았다.[9]

그리고 이 결론은 순수한 서술 행위가 중립적이라는 점과 모순이다. 순수한 서술 행위가 진리평가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순수한 서술 행위가 중립적이라는

---

[8] 행크스는 해당 논증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며, 이 글에서 붙인 이름은 원래 강진호 (2017)가 붙인 이름이다.

[9] 원래 논증은 (Hanks 2015, 37)에서 제시되었다. 번역된 논증은 (강진호 2017, 123)을 인용했다.

것과 모순인 결론이 나왔으므로, 진리평가가능한 동시에 중립적인 순수한 서술 행위 개념은 비정합적이다.

행크스에 따르면 논증의 각 단계는 앞 단계로부터 사소하게 따라 나온다(37). 2.는 서술 행위에서 올바름 조건이 곧 진리 조건이므로 성립하고, 3.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실수를 했으므로 성립하고, 4.는 a가 F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여부에 대해 실수할 수는 없으므로 성립하고, 5.는 입장을 취하면 곧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성립한다.

위 논증에서 행크스는 올바름과 실수 개념을 규범적(normative) 뜻으로 쓰지 않는데(37), 이로 인해 논증의 단계들 중 상당수가 사소하게 성립할 수 있다. 행크스는 이 논증에서 행위자가 서술 행위와 관련된 규범을 어겨서 서술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논증에서 S의 서술 행위는 단지 그 행위가 거짓이라는 뜻에서 올바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행위자는 어떤 다른 규범을 어겨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행크스는 행위자가 단지 거짓인 행위를 했다는 뜻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했기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한다.

1.4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

행크스의 이론에서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인 서술 행위는 본성상 주장적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서술 행위가 곧 주장 행위다. 그런데 모든 서술 행위 사례가 또한 주장 행위라면, 이는 프레게-기치 요점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프레게-기치 요점에 따르면 명제가 나타나면서도 이 명제를 주장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레게-기치 요점(the Frege-Geach point)이란 "한 명제가 한번은 주장된 채, 한번은 주장되지 않은 채 담화에 나타나면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recognizably), 같은 명제일 수 있다"(Geach 1965, 254–5)는 사실을 말한다. 피터 기치(Peter Geach)가 고틀로프 프레게(Gottlob Frege)의 이름을 따서 이 사실

에 ‘프레게 요점(the Frege point)’이란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에는 흔히 ‘프레게-기치 요점’으로 불린다.

프레게-기치 요점의 사례 중 하나는 조건문의 발화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나는 “1은 짝수다”라고 거짓인 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나는 “만약 1은 2의 배수라면, 1은 짝수다”라고 참인 주장도 할 수 있다. 이때 나는 “1은 2의 배수다”라고 주장하지도, “1은 짝수다”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첫 번째 주장 사례와 두 번째 주장 사례에서 나는 똑같이 ‘1은 짝수다’란 문장을 써서 ⟨1은 짝수다⟩란 명제를 표현했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이 명제가 주장된 반면 후자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다. 행크스가 정리하듯 이런 현상은 “부정문이나 선언문을 발화할 때, 가설을 세울 때, 연극에서 연기할 때, 시나 소설을 쓸 때, 농담할 때, 아이러니하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을 소리 내 읽을 때”(Hanks 2015, 91)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문제는 행크스의 주장처럼 명제가 서술 행위이고 이 행위의 사례가 곧 주장이라면, 프레게 기치 요점을 만족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건문을 주장할 때 조건문의 전건은 주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행크스의 이론에서 조건문을 주장한다는 것은 조건문이 표현하는 명제인 서술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건문의 일부분인 전건이 표현하는 명제인 서술 행위 또한 수행해야 한다. 모든 서술 행위 사례가 주장이라면, 전건에 해당하는 서술 행위 사례 또한 주장이므로, 결국 조건문을 주장하면 전건 또한 주장하게 된다.

프레게-기치 요점은 내용과 효력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행크스와 같이 내용과 효력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인 명제 안에 주장 효력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 본다면, 명제가 어떻게 주장 효력 없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반면 내용과 효력을 완전히 구분한다면 프레게-기치 요점의 사례들은 단지 효력 없이 내용만 나타난 사례들로 이해할 수 있다. 행크스에 따르면 전통적인 프레게식 구도는 다음과 같이 내용과 효력을 구분한다(12–8). 내용인 명

제는 마음과 독립적인 존재자다. 반면 떠올림(entertainment), 판단(judgment), 표현(expression), 주장(assertion)은 우리가 명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하는 행위다. 이 가운데 떠올림과 판단은 내적인 심적 행위다. 우리는 명제를 떠올려서 명제를 식별한다(identify). 이렇게 식별한 명제가 참임을 인정(acknowledgement)하는 것이 판단이다. 표현과 주장은 언화 행위다.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은 명제를 청자에게 보여 준다(present)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명제에 대해, 그 명제가 참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자신이 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manifestation)이 주장이다. 행크스가 설명한 프레게식 구도에 따르면 같은 명제가 한번은 주장된 채 한번은 주장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프레게-기치 요점의 사례는 같은 명제가 한번은 표현만 되고 한번은 표현되는 동시에 주장되기도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크스는 "취소된 서술(cancelled predic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취소된 서술은 취소 맥락(cancellation context) 하에서 수행된 서술 행위다. 행크스에 따르면 취소된 서술 행위는 서술 행위가 일상적으로 지니는 요건들(requirements), 개입들(commitments), 귀결들(consequences), 지위(status)를 지니지 않는다(32, 39, 90). 예를 들어, 어떤 화자가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명제, 즉 서술 행위를 수행하는데, 이 서술 행위가 취소 맥락 하에 놓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화자는 "클린턴이 유창한지 알지 못하거나, 클린턴이 유창하다고 믿지 않거나, 클린턴이 유창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규칙도 어기지 않"(94)고, "클린턴이 유창하다고 생각할 이유를 제시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94)는다. 특히 취소된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고, 판단이나 주장의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90, 97).

이제 프레게-기치 요점과 관련된 사례들은 취소 맥락 하에서 서술을 수행한 취소된 서술의 사례들로 설명된다. 조건문을 주장하는 위 예에서, 화자는 '만약(if)'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취소 맥락을 생성한다(Hanks 2019, 1392). 전건과 후건에 해당하는 서술 행위는 이 취소 맥락의 지배를 받아 주장이라는 일상적 지

위를 잃는다. 즉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서술 행위가 본성상 주장적인 행크스의 이론에서도 조건문의 전건이 주장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취소 맥락이 있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행크스는 두 종류의 근거를 제시한다. 하나는 연극의 대사가 주장되지 않는 이유를 취소 맥락을 통해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 맥락이 서술 행위가 아닌 다른 종류의 행위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첫째, 연극에서 무대에 선 배우가 대사를 발화할 때 이 발화가 주장이 아닌 이유를 취소 맥락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행크스는 주장한다(Hanks 2015, 92–4). 배우의 발화를 설명하는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프레게가 제시했던 설명으로서, 배우의 발화가 주장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어떤 요소를 결핍해서 주장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행크스의 설명으로서, 배우가 하는 발화는 주장인 발화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서술 행위이지만, 취소 맥락의 지배를 받아 주장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발생하는 취소 맥락이란 연극 무대에서 하는 연기와 관련된 규약(convention)이다(94). 행크스는 둘 중 자신의 설명만이 배우의 발화를 제대로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취소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배우의 발화에 그 어떤 요소를 추가하더라도 배우의 발화는 주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93–4). 예를 들어, 배우가 자기 대사가 뜻하는 바를 정말로 믿고, 그것이 참이라는 점에 개입하기를 의도하더라도 배우의 발화는 여전히 주장이 되지 못한다. 만약 프레게의 설명이 옳다면, 배우의 발화가 결핍한 요소를 적절히 추가한다면 배우의 발화도 주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요소를 추가해도 배우의 발화가 주장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의 발화는 주장이 가져야 할 요소를 결핍하여 주장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레게의 설명은 배우의 발화와 관련된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행크스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설명에서 주장이 아닌 배우의 발화는 주장인 서술 행위보다 무언가를 결핍하지 않으며, 둘은 동일한 행위 유형을 수행한 사례들이다. 단지 배우의 발화라는 서술 행위

사례에 취소 맥락이 더해져서 배우의 발화가 주장이 되지 못하고 일상적 귀결을 갖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취소 맥락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요소를 더하더라도 배우의 발화는 여전히 취소 맥락에 의해 주장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둘째, 행크스는 어떤 행위가 취소 맥락 하에서 수행되면서 그 행위의 일상적 지위나 귀결을 잃는 현상이 서술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94). 그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 활동에서 이러한 취소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하나는 체스와 관련된 예고 다른 하나는 미식축구와 관련된 예다.

체스 예에서 행크스는 체스 게임 도중 한 참가자가 나이트를 움직이는 행위가 어떻게 취소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32). 이 참가자는 체스에 서투른 상대편 참가자에게 나이트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가르치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상대에게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나이트를 움직인다. 일상적으로는 나이트를 움직이는 행위를 체스의 한 수로 간주하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참가자는 단순히 나이트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을 뿐이다. 이 예에서 취소 맥락은 시범 맥락이고, 이 시범 맥락에서 나이트를 움직이는 행위는 체스의 한 수가 된다는 일상적 지위를 잃는다(94).

미식축구 예에서 행크스는 수비팀 선수가 공격팀의 엔드존 내에서 쿼터백에게 태클하는 행위가 어떻게 취소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Hanks 2015, 94–5; 2019, 1391–2). 수비팀 선수가 이렇게 태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세이프티라는 지위를 지니며, 수비팀이 점수 2점과 공의 소유권을 얻는 귀결을 지닌다. 그러나 태클이 있기에 앞서 수비팀이 페널티를 저질렀고,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특별한 조치 없이 경기가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수비팀의 태클은 세이프티로 인정되지 않고, 점수나 공의 소유권도 얻지 못한다. 이 예에서 취소 맥락은 수비팀이 페널티를 저질러 발생한 맥락이고, 이 취소 맥락에서 쿼터백에게 태클하는 행위는 세이프티라는 일상적 지위와 점수

와 공의 소유권을 얻는다는 일상적 귀결을 잃는다.

앞선 설명들에서 드러나듯 취소된 서술은 '취소'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뜻하는 바와 달리, 원래 있던 서술 행위가 취소되어 없어지거나, 서술 행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 행크스는 취소된 서술 행위란 서술 행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Hanks 2011, 21)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고(Jespersen 2012, 624–5; Hom and Schwartz 2013, 20–2; Reiland 2013, 242–3), 이후 행크스는 취소된 서술이란 취소되지 않은 서술 행위와 똑같은 행위가 취소 맥락에 놓여 그 행위의 지위나 귀결만 바뀐 것이라는 설명을 옹호하게 되었다(Hanks 2015, 98–9; 2019, 1389).

한편 취소된 서술이 일어나는 예인, 선언문이나 조건문과 같이 다른 문장이 삽입된(embedded) 복합문이 표현하는 서술 행위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적 이동(target-shifting) 개념이 추가로 필요하다.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란 "주체가 지칭한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수행한 행위의 유형을 표적으로 한 서술 행위"(Hanks 2015, 99)를 말한다. "클린턴이 유창하거나 바이든이 끈질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표적 이동이 일어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 주장이 사례화하는 ⟨클린턴이 유창하거나 바이든이 끈질기다⟩라는 명제를 앞서 제시한 기호화를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06).

$\vdash_{\uparrow}$⟨(~⊢⟨**클린턴**, 유창함⟩, ~⊢⟨**바이든**, 끈질김⟩), 선언⟩

여기서 '선언'은 두 명제 중 하나 이상이 참일 때 오직 그때만 두 명제가 맺는 선언(disjunction) 관계(105), 즉 ⟨__이거나 __임⟩과 같은 관계를 나타낸다. 이제 위 기호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호인 '~'와 '$\uparrow$'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는 취소 맥락을 나타낸다. 이 기호는 다른 기호들과 달리 행위가 아닌 맥락을 나타낸다. '~'가 어떤 '⊢'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가 나타내는 서술 행위가 취소 맥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 예에서 전체 선언문은 주장되지만, 각 선언지들은 주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언 관계를 서술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맨 앞에 놓인 '⊢' 앞에는 '~'가 없지만, 두 선언지가 표현하는 명제인 서술 행위들을 나타내는 '⊢'들 앞에는 '~'가 놓여 있다.

'↑'는 표적 이동을 나타낸다. 어떤 '⊢' 바로 뒤에 '↑'가 놓여 있다는 것은 이 '⊢'가 나타내는 서술 행위가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라는 것을 나타낸다. 위 예에서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가 서술하는 관계는 선언 관계다. 선언 관계는 명제들, 즉 서술 행위 유형들에 대해서 서술되어야 하는데, 명제를 지칭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수행된 것은 클린턴에게 〈유창함〉을 서술한 사례와, 바이든에게 〈끈질김〉을 서술한 사례다. 서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술 행위 사례들로부터 각 사례의 유형들로 서술의 표적을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표적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선언 관계를 서술하기에 이 서술 행위는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다.

제 2 장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 비판

취소된 서술이라는 행크스의 새로운 제안은 여러 비판을 받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비판들 가운데 특히 중립성 반대 논증과 관련된 비판들을 논의하겠다.

2.1절에서는 중립성 반대 논증에 따르면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면서 비중립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다는 미첼 S. 그린(Mitchell S. Green)의 비판을 논의한다. 이 비판이 성공적이려면 중립성 반대 논증을 취소된 서술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크스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두 가지 제시했다.

2.2절에서는 중립성 반대 논증이 취소된 서술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행크스의 두 설명을 비판한다. 우선, 취소 맥락에서 행위자에게 실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행크스의 설명이 기술적인 실수 개념과 규범적인 실수 개념을 혼동했다는 강진호의 비판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행크스의 다른 설명인 독극물 유비가 설득력이 없다는 내 논증을 제시한다.

2.3절에서는 중립성 반대 논증이 취소된 서술에 적용될 경우, 취소된 서술이 주장이라는 점까지 따라 나온다는 강진호의 비판을 논의한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이승택은 취소된 서술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전제를 포기함으로써, 취소된 서술이 주장이 되는 결론을 막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나는 취소된 서술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점은 서술 행위가 분류 행위라는 점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귀결이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는 취소된 서술 사례의 진리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비판들에 의해 행크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이는 서술 행위가 일상적으로 지니는 속성들 가운데 취소 맥락에서 잃는 것이 무엇이고 유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행크스에

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2.1 취소된 서술에 적용된 중립성 반대 논증

그린은 행크스의 이론이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라는 점과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모두 함축한다고 비판한다(Green 2018, 114 ,119–20). 행크스에 따르면 취소된 서술의 사례는 중립적이다. 그런데 행크스의 중립성 반대 논증에 따르면 중립적 서술 개념은 비정합적이므로, 취소된 서술의 사례 또한 비중립적이라는 점을 그린은 지적한다.

얼핏 보면 이러한 비판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행크스에 따르면 중립성 반대 논증은 모든 서술 행위 사례에 대해 적용되는 논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크스는 순수한 서술 행위와 순수하지 않은 서술 행위를 구분했고, 순수한 서술 행위 사례를 가정하여 중립성 반대 논증을 진행했다. 그리고 취소된 서술 사례는 순수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행크스가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적용했던 종류의 사례가 아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중립성 반대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행크스가 따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순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중립성 반대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행크스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면, 우리는 중립성 반대 논증이 순수한 서술만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서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린의 비판을 따라, 행크스의 이론이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면서 중립적이지 않다는 모순을 함축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행크스가 제시한, 순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중립성 반대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취소 맥락에서는 행위자에게 실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Hanks 2015, 39–40, 97–8). 둘째, 독극물과 유비가 성립한다(Hanks 2015, 40; 2019, 1393). 두 이유에 대한 비판을 다음 절에서 다루겠다.

2.2 행크스의 답변과 그 문제점

행크스가 제시한, 순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중립성 반대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취소 맥락에서 행위자에게 실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Hanks 2015, 39–40, 97–8). 이로 인해 취소된 서술에 대해서는 중립성 반대 논증 가운데 다음 2단계로부터 3단계가 따라 나오는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2.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3. S는 실수를 저질렀다.

취소 맥락에서 행위자에게 실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취소 맥락에서는 서술 행위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묻지 않"(39)기 때문이다. 행크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는 배우의 대사가 거짓일 때 그 배우가 실수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가 (참인) 선언문을 주장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거짓인 선언지를 발화할 때 그녀가 잘못했다고 고발하지 않는다. 취소 맥락은 당신이 거짓 서술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떠한 점에서든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도록 허용해 준다. (97–8)

강진호는 위 설명에서 행크스가 실수 개념을 규범적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강진호 2017, 125–6). 규범적 실수 개념을 쓰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애초에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제시하면서 행크스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가는 추론을 옹호할 때 쓴 실수 개념이 규범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행크스는 서술하는 행위자가 서술 행위와 관련된 규범을 어겨서 서술 행위가 올바르지 않거나 행위자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단지 거짓인 행위를 해서 이 행위는 올바르지 않고 행위자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Hanks 2015, 37). 따라서 순수하지 않은 서술 사례에 대해 3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행크스의 설명이 규범적 서술 개념을 쓰고 있다면, 행크스의 설명과는 무관하

게, 기술적 서술 개념을 쓰는 중립성 반대 논증은 순수하지 않은 서술 사례에 대해 여전히 성립할 것이다.

강진호에 따르면 행크스의 설명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실수 개념을 규범적 개념으로 쓰고 있다(강진호 2017, 125). 첫째, 누군가의 실수에 대한 비난이나 잘못에 대한 고발은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125) 주어진다. 이는 행크스가 말하는 실수 개념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을 어겨서 저지른 실수이므로 규범적 개념의 실수 개념이라는 점을 강진호가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행크스는 거짓인지 여부와 잘못인지 여부를 구별한다. 강진호의 두 번째 지적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가 단순히 거짓인 행위를 해도 그 사람은 기술적 개념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짓인 행위를 했지만 잘못하진 않아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면, 잘못해서 저지르는 실수는 기술적 개념의 실수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중립성 반대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 둘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순수한 행위는 진리평가가능한 동시에 중립적일 수 없지만, 이는 그 행위가 더 넓고 순수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어날 때 중립적이게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음을 비교하라. 순수한 형태에서는 유독한 어떤 물질이 적절한 용액에 용해될 땐 무해하게 된다. 유사하게, 고립되어 나타날 땐 완전히 개입적인 서술 행위가 적절한 맥락에서 나타날 땐 비개입적이게 된다. 취소된 서술 개념은 중화된 독 개념보다 비정합적이지 않다.(Hanks 2015, 40)

행크스는 서술 행위를 독성 물질에, 비중립성을 유독성에, 취소 맥락을 적절한 용액에 비유하여 용액에 용해된 독성 물질이 유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취소 맥락에 놓인 서술 행위는 비중립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행크스의 답변이 중립성 반대 논증에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않은 서술이 중립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해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행크스와 달리, 솜즈처럼 순수한 서술 행위가 중립적이고 이 행위가 다른 적절한 행위와 동반하여 수행될 때 비중립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유사한 형태의 유비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다음 유비를 생각해 보자. 단일하게 복용하면 무해한 약물 A가 다른 약물 B와 함께 복용했을 땐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유사하게, 고립되어 나타날 땐 비개입적인 서술 행위가 적절한 행위와 동반하여 나타날 땐 개입적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은 중립성 반대 논증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순수한 서술 행위가 중립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립성 반대 논증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립성 반대 논증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하는 순수한 서술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과, a는 F가 아니라는 점을 가정하고, 서술 행위가 진리평가가능하다고 전제하면, 이로부터 다음 각 단계가 따라 나온다.

1.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3. S는 실수를 저질렀다.
4. S는 a가 F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음에 틀림없다.
5. S의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지 않았다.[1]

행크스는 논증의 각 단계가 앞 단계로부터 사소하게 따라 나온다고 주장했다(Hanks 2015, 37). 이러한 논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논증의 전제를 거부하여 서술 행위가 진리평가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논증의 각 단계를 도출하는

[1] 원래 논증은 (Hanks 2015, 37)에서 제시되었다. 번역된 논증은 (강진호 2017, 123)을 인용했다.

사소해 보였던 과정들 중 하나가 실은 사소하지 않으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위 유비를 통해서는 둘 중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행크스가 제시한 독극물 유비는 순수하지 않은 서술에 대해서 중립성 반대 논증의 각 단계 중 어느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독극물이 어떤 인과적 기작을 통해 유독성을 나타내는지, 용액에 용해될 땐 인과적 기작의 단계 중 어느 단계가 작동하지 않아 독극물이 무해한지를 설명한다면, 이에 빗대어 서술 행위가 취소 맥락에 놓일 때 어떤 기작을 통해 비중립성을 지니게 되는지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립성 반대 논증에서 어떤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크스는 이러한 종류의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

순수하지 않은 서술에 대해서 중립성 반대 논증의 각 단계를 끌어내는 추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중립성 반대 논증은 순수하지 않은 서술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행크스의 주장과 달리, 순수하지 않은 서술 행위 역시 비중립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2.3 취소 반대 논증에 근거한 강진호의 비판

강진호는 중립성 반대 논증과 유사한 “취소 반대 논증”을 구성하여, 취소 맥락에서도 여전히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했다(강진호 2017, 123–7). 중립성 반대 논증이 취소된 서술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는 단순히 이 사례가 비중립적이어서 취소된 서술이 중립적이라는 행크스의 주장과 모순이 일어난다는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중립성 개념과 주장 개념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강진호는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거짓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사례가 주장이고 따라서 취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까지 끌어내는 다음과 같은 취소 반대 논증을 제시했다(124–5). 우선 중립성 반대

논증과 마찬가지로,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하는 행위를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a는 F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단 이번에는 S가 수행한 서술 행위가 순수한 서술 행위가 아니고 취소 맥락 C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로부터 다음 각 단계가 따라 나온다.

1*.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1*.에 의해)

3*. 맥락 C에서 S는 실수를 저질렀다. (2*.에 의해)

4*.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는 입장을 취했음에 틀림없다. (3*.에 의해)

5*.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고 주장했음에 틀림없다. (4*.에 의해)

6*. 맥락 C에서 S의 주장 행위는 취소되지 않았다. (5*.에 의해)[2]

행크스의 중립성 반대 논증이 각 단계에서 제시된 개념들 사이의 명백한 연관성에 의해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취소 반대 논증 또한 제시된 개념들 사이의 명백한 연관성에 의해 성립한다고 강진호는 설명한다(강진호 2017, 125).

강진호는 행크스가 취소 반대 논증의 각 단계를 거부할 방법을 두 가지 고려한다(125–7). 첫째는 행위자에게 실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행크스의 주장으로 이를 통한 답변이 실수 개념을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하므로 부적절하다는 강진호의 비판을 앞선 절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둘째는 취소 맥락에서도 서술 행위를 수행할 때 주장 행위가 일어나지만, 이렇게 일어난 주장 행위가 취소 맥락이므로 취소되어 5*.까지는 논증이 성립하지만 6*.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방법이다(126–7). 강진호는 이러한 방법에서는 취소된 서술 행위가 진리치를 지니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이 논증은 (강진호 2017, 125)에서 인용했다. 논증의 각 단계를 표기하는 방법과 괄호의 종류를 이 글의 양식에 맞게 수정했다.

취소 반대 논증에서 보듯, 서술 행위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것은 서술 행위가 주장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서술 행위가 주장이라는 것이 취소된다면 서술 행위가 진리치를 갖는다는 것 또한 취소되어, 취소된 서술 행위는 진리치를 지니지 않게 된다. 그런데 선언문처럼 다른 문장이 삽입된 복합문이 표현하는 서술 행위의 진리치를 합성적으로 결정하려면, 선언지가 표현하는 취소된 서술 행위처럼 그 부분인 서술 행위가 진리치를 지녀야 하므로, 취소된 서술 행위는 진리치를 지녀야 한다고 강진호는 주장한다(127).

이러한 강진호의 비판에 대해, 이승택은 취소 반대 논증 가운데 1*.로부터 6*.로 이어지는 논증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서술 행위 **사례**와 서술 행위 **유형**의 진리치를 구분함으로써 행크스를 보호하고자 시도한다(이승택 2019). 이승택은 애초에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를 지니지 않으므로 취소된 서술 사례가 주장이 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승택은 순수한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를 지니므로 서술 행위 유형 또한 진리치를 지니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 중 일부인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는 예외적으로 진리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설명한다(324–7). 이승택은 강진호의 비판과 달리,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를 지니지 않더라도 전체 복합 명제에 해당하는 서술 행위의 진리치를 합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표적 이동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317–2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호화 할 수 있는 ⟨클린턴이 유창하거나 바이든이 끈질기다⟩라는 명제는 이승택의 설명을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진리치가 합성적으로 결정된다.

$\vdash_{\uparrow}$⟨(~⊢⟨**클린턴**, 유창함⟩, ~⊢⟨**바이든**, 끈질김⟩), 선언⟩

우선 클린턴에 ⟨유창함⟩을 서술하는 사례와 바이든에 ⟨끈질김⟩을 서술하는 사례는 취소 맥락의 지배를 받으므로 진리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런데 ⟨선언⟩은 이 사례들에 대해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이동을 통해 각 사례로부터 얻는 유형들에 대해 서술된다. 이 유형들, 즉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명제와 ⟨바이든

이 끈질기다〉는 명제는 진리치를 지니므로 〈선언〉을 서술하는 행위의 진리치는 이들로부터 합성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나는 진리치가 어떻게 합성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더라도, 서술 사례가 진리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전히 행크스의 이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것은 서술 행위가 일종의 분류 행위라는 점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귀결이며, 이러한 귀결이 취소 맥락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취소 맥락에서 이러한 귀결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볼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취소된 서술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분류 행위라는 것 또한 거부해야 한다. 서술 행위의 본성에 대해 행크스와 다른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이면 서술 행위의 본성에 대한 설명 또한 버리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중립성 반대 논증이나 취소 반대 논증과 유사한 논증을 통해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분류 행위라는 점으로부터 이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점이 따라 나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 이를 '진리치 논증'이라고 부르자. 진리치 논증은 다음과 같다. 취소 맥락 C에서,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하고, a는 F가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1**. 맥락 C에서 S가 a를 F인 사물들 중 하나로 분류한다.

2**. 맥락 C에서 S의 분류(서술) 행위는 a가 F일 때 오직 그때만 올바르다.

3**. 맥락 C에서 S의 분류(서술) 행위는 a가 F일 때 오직 그때만 참이다.

4**. 맥락 C에서 S의 분류(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5**. 맥락 C에서 S의 분류(서술) 행위는 진리치를 지닌다.

1**.는 서술 행위가 분류 행위의 일종이므로 성립한다. 2**.는 서술되는 속성 F가 분류를 위한 규칙을 제공하고, 이러한 규칙이 분류 행위의 올바름 조건을

결정하므로 성립한다. 3**.는 올바름 조건이 진리 조건이므로 성립하고, 4**.는 가정상 a는 F가 아니므로 앞서 나온 진리 조건에 의해 성립한다. 5**.는 “거짓”이 진리치이므로 성립한다.

위 논증에서 1**.로부터 2**.가 따라 나오는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추론은 어떻게 명제가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대한 행크스의 대답에 근거한다. 일단 보기에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대한 행크스의 설명은 취소 맥락에 놓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술 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설명처럼 보인다. 또한 a를 F인 것으로 분류하는 행위는 a가 F일 때 오직 그때만 올바르다는 올바름 조건은 그 자체로 자명하고, 분류 규칙이 있는 분류 행위이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조건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거부를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1**.로부터 5**.에 이르는 논증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취소된 서술 사례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점을 거부한다면, 취소된 서술 사례가 분류 행위라는 점 또한 거부해야 한다. 이는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취소 맥락에 고유한 서술 행위의 본성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제공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문제다. 왜냐하면 취소된 서술에 대한 행크스의 기본적인 착상에 따르면, 순수한 서술 행위 사례와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서로 수행된 맥락만 다를 뿐 동일한 종류의 서술 행위이기 때문이다.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분류 행위가 아닌 새로운 종류의 행위라면, 맥락만 다를 뿐 같은 행위를 수행한다는 착상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설명에서 취소된 서술은 실은 서술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서술과는 다른 어떤 행위가 수행된 것이다.

취소 반대 논증과 진리치 논증의 일부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얻는다. 취소 맥락 C에서,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하고, a는 F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다음이 따라 나온다.

1**. 맥락 C에서 S가 a를 F인 사물들 중 하나로 분류한다.

2**. 맥락 C에서 S의 분류(서술) 행위는 a가 F일 때 오직 그때만 올바르다.

3**. 맥락 C에서 S의 분류(서술) 행위는 a가 F일 때 오직 그때만 참이다.

1*.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3*. 맥락 C에서 S는 실수를 저질렀다.

4*.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는 입장을 취했음에 틀림없다.

5*.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고 주장했음에 틀림없다.

6*. 맥락 C에서 S의 주장 행위는 취소되지 않았다.

이제 행크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논증의 단계들 중 취소 맥락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어느 단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첫 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논증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만약 단계들 중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앞서는 모든 단계가 거짓이 되므로 취소된 서술 행위가 분류 행위가 아니라는 점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모든 단계가 참이라고 인정한다면, 결국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인정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편도 행크스가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다. 그런데 앞선 절에서 논의했듯, 취소 맥락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행크스가 아직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크스는 이러한 선택지들 중 하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2.4 비판에 답하기 위해 행크스에게 요구되는 것

나는 기존 비판들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때 취소된 서술에 관한 행크스의 이론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서술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속성들을 지닌다. 서술 행위는 분류 행위이고, 진리 조건을 지니고, 비중립적이다. 한편 취소 맥락 하에서 서술 행위가 수행될 때, 서술 행위는 일련의 속성들 중 일부는 지니고, 일부는 지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술 행위는 취소 맥락 하에서 진리 조건을 여전히 지니지만, 비중립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설명하려고 하든,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든 행크스는 문제를 겪는다.

우선 취소 맥락에서 유지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 보자. 한편으로 명제의 단일성 문제에 답하면서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한 속성들이 다른 설명 없이 취소 맥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관련성을 잃는 것은 신비로워 보인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고 유지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의 차이를 포기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차이를 포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속성이 취소 맥락에서 유지된다고 보거나, 아니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속성을 취소 맥락에서 잃는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취소 맥락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취소된 서술을 통해서는 프레게-기치 요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 서술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던 모든 속성을 취소 맥락에서 잃는다면 취소 맥락에서 서술이란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프레게-기치 요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서술 행위가 무엇인지 새롭게 설명하지 않는 한, 행크스는 취소 맥락에서 유지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행크스가 자신의 이론에서 두 종류의 속성 간의 차이를 설명하려 하더라도 당장은 마땅한 설명 방법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행크스의 이론에는 이러한 설명을 위한 자원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단지 취소 맥락이라는 정보

만 주어졌을 뿐, 취소 맥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어떤 속성은 유지되고 어떤 속성은 잃어버리는지를 행크스는 설명하지 않았다. 행크스는 서술 행위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취소가 일어나는 여러 예시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예시들에서도 어떤 원리에 의해 취소 맥락이 작동하는지를 행크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크스는 새로운 요소를 자신의 이론에 도입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제시한 요소들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어 보인다.

제 3 장 무시된 서술로서의 취소된 서술

나는 중립성 반대 논증이 일반적 서술 행위뿐 아니라 취소 맥락에 놓인 서술 행위(취소된 서술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서술 행위가 항상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행크스가 말하는 "취소된 서술"을 "무시된 서술"로 이해하고 후자를 통해 프레게-기치 요점을 설명함으로써, 행크스 이론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나는 무시(ignoration) 개념을 통해 서술 행위에 대해서 취소 맥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토론에서 한 참여자가 특정한 입장의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이 다른 모두에게 무시되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그 의견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질 가능성을 지니고, 그 의견이 토론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의견이 무시되면 더는 이런 가능성들을 지니지 못한다. 그렇지만 무시된 의견을 낸 참여자가 특정한 입장의 의견을 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가 수행될 때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무시 개념을 도입하여 취소된 서술을 설명하자는 제안이 전적으로 새롭거나 독창적이지는 않다. 이미 인드렉 레일란드(Indrek Reiland)가 어떤 것에 대해 개의치 않음(don't care)을 통해 취소된 서술을 이해하는 것이 행크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iland 2019a, 148). 다만 이는 레일란드가 행크스의 이론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다. 레일란드는 연극 사례가 어떻게 설명될지 제시하고 개의치 않음을 통한 설명에 대해 두 가지 우려만 제시할 뿐, 취소에 관한 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진 않는다. 레일란드와 달리 나는 무시 개념을 통해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을 발전시키려 한다.

이 장에서는 무시 개념을 통해 설명된 새로운 취소된 서술 개념을 제안한다. 3.1절에서는 새로운 제안의 기본적인 착상을 제시한다. 나는 취소된 서술 행위가 인지 주체에게 무시되어 특정한 일상적 요건, 개입들을 지니지 않고, 이로 인해 넓은 의미에서 판단이나 주장의 지위를 갖지만 좁은 의미의 판단이나 주장의 지위는 지니지 않는 서술 행위라고 제안한다. 3.2절에서는 무시된 서술 행위가 어떻게 일상적 요건과 개입을 잃고, 어떻게 좁은 의미의 판단이나 주장의 지위를 지니지 않는지 논의한다. 이를 통해 취소 반대 논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논의한다. 3.3절에서는 취소된 서술이면서도 일시적으로 무시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논의한다. 3.4절에서는 무시 개념을 통한 설명에 대한 가능한 비판들에 답하고,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에 대한 다른 대안인 레일란드의 이론을 논의하면서 레일란드의 이론에 비해 내 이론이 지니는 장점을 제시한다.

3.1 무시된 서술 개념

기본적인 착상은 다음과 같다. 서술 행위를 수행한 당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행위자가 수행한 서술 행위 사례를 무시한다(ignore). 무시된 서술 행위는 특정한 일상적인 규칙, 개입, 귀결들을 일반적으로 지니지 못한다. 이로 인해, 무시된 서술 행위는 언화 행위나 심적 행위의 개별적인 분류로서 좁은 의미의 주장이나 판단이 아니다. 다만 무시된 서술 행위는 여전히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이며 이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주장이나 판단이다.

우선 취소된 서술에 관한 새로운 이론에서 내가 쓰는 무시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무시'란 한국어 표현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1)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함", (2)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김"("무시[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이란 두 뜻이 있는데, 이 중 내가 말하려는 뜻은 첫 번째다. 나는 일상적 용법이 허용하는 한 좀 더 넓은 뜻에서 무시 개념

을 쓰고자 한다. 무시란 어떤 대상을 무시하는 주체가 그 대상의 의의나 가치, 또는 대상이 지닌 속성의 의의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뜻한다.

내가 말하려는 무시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빨간색 신호등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자. 이 사람은 신호등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빨간색일 땐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교통 규칙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빨간색 신호등 신호를 보고서도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때 보행자가 무시한 대상은 신호등 신호다. 취소된 서술에 관한 새로운 이론에서 서술 행위 사례가 취소될 때 무시의 대상은 취소되는 서술 행위 사례다.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신호에 무지한 것과 구분해야 한다. 즉 무시(ignoration)와 무지(ignorance)를 서로 구분해야 한다.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현재 신호 색깔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신호에 무지한 사람은 현재 신호 색깔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신호와 관련된 교통 규칙을 아예 모를 것이다. 신호에 무지해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신호에 무지하지 않고 신호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신호를 무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지 주체가 자신의 서술 행위 사례를 무시하더라도 이를 위해 인지 주체가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서술 행위 사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필요는 없다. 서술 행위를 수행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인지하고 있더라도 인지 주체는 그 행위를 무시할 수 있다.

무시된 대상은 어떤 속성들을 지니는데 무시하는 주체는 무시된 대상이 이러한 속성들을 지닌다는 것의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다만 그 속성은 의의를 인정받지 못할 뿐 여전히 무시된 대상이 지니는 속성이다. 예를 들어, 빨간색 신호일 때 누군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신호 색깔은 여전히 빨간색이다. 색깔이 없어지거나 녹색으로 바뀌진 않는다. 본질적(essential)인 속성도 무시될 때 잃는 속성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시되어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점은 여전히 성립한다. 이와 유사하게 서술 행위가 분류 행위라는 점은 서술 행위가 무시되어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술 행위는 곧 분류 행위로서 규정되고, 분류 행위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 더는 서술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떤 대상이 무시되면서도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성립할 때, 대상이 그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과 함께 사람들이 이 대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무관한 사실들 때문에 또한 지니게 되는 다른 속성들 역시 무시가 일어나더라도 유지가 된다. 예를 들어, 빨간 신호가 들어올 때 신호등 신호가 색깔을 지닌다는 사실은 신호등 신호가 빨간색이라는 사실에만 근거해서 성립하므로, 누군가 신호등 신호를 무시하더라도 신호등 신호는 여전히 빨간색일 뿐 아니라 색깔을 지닌다. 서술 행위가 분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비중립적이고 개입적이며 진리 조건을 지닌다. 따라서 후자의 사실들 또한 서술 행위가 무시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한편 무시된 대상은 무시를 당함으로써 무시 받지 않았더라면 지닐 수 있었던 어떤 속성들을 지니지 않게 된다. 신호등 예를 다시 보자.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빨간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는 규칙을 모두가 잘 지킨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빨간색 신호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누군가 빨간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빨간색 신호는 더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빨간색 신호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특히 신호를 무시한 그 보행자가 신호를 잘 지켰어야만 신호가 특정한 것을 나타낸다는 이 사실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취소가 일어나지 않을 때 서술 행위가 일상적으로 지니는 요건, 개입, 귀결들 중 일부는 이 서술 행위에 대해 행위자들이 특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서술 행위가 지닐 수 있는 속성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단인 서술 행위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서술 행위를 항상 무시하여 행위를 할 이유로서 고려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이 서술 행위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취소가 일어나면 서술 행위는 일상적 요건, 개입, 귀결들 중 일부를 지니지 못하는데, 이렇게 취소된 서술이 지니지 못하게 되는 귀결들을 무시된 대상이 무시로 인해 지니지 못하게 되는 속성들로 볼 수 있다.

3.2 무시된 서술이 지니는 속성과 잃는 속성

이 절에서는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과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을 구별하고, 무시된 서술 행위가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의 지위는 잃지만,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의 지위는 유지한다는 점을 논의하겠다. 비록 무시된 서술이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프레게-기치 사례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하겠다.

나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겠다.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은 행위자가 어떤 입장을 택하는 서술 행위를 뜻한다. 이때 택하는 입장이란, a라는 대상에 F라는 속성을 서술하는 행위자가 a가 F인지 여부에 대하여 a가 F라는 입장을 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입장을 말한다. 입장을 택하는 서술 행위가 언화 행위를 통해 수행되었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주장이고, 심적 행위를 통해 수행되었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판단이다. 좁은 의미의 주장은 여러 언화 행위 중 하나인 주장이며, 넓은 의미의 주장은 주장뿐만 아니라 제안과 같은 다른 언화 행위를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좁은 의미의 판단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수행하는 판단이며, 넓은 의미의 판단은 추측, 상상과 같은 다른 심적 행위를 포함한다.[1]

[1] 행크스 본인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행크스의 주장을 더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행크스는 명제가 "본성상(inherently) 판단적이고 주장적이며"(Hanks 2015, 22), "서술의 형태로, 특징적으로 주장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때 주장적이거나 판단적인 특징은

나는 무시된 서술 행위가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의 주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좁은 의미의 판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우선 무시된 서술 행위가 좁은 의미의 주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행위가 무시로 인해 좁은 의미의 주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일상적 귀결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행크스는 연극 무대에 선 배우가 "클린턴이 유창하다"라고 발화할 때 배우의 서술 행위가 취소 맥락에 놓이므로 어떤 정상적 요건과 귀결을 지니지 않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배우는 클린턴이 유창한지 알지 못하거나, 클린턴이 유창하다고 믿지 않거나, 클린턴이 유창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 배우는 클린턴이 유창하다고 생각할 이유를 제시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며, 배우의 권위에 기초해서 클린턴이 유창하다고 주장할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지도 않는다. (Hanks 2015, 94)

이 구절에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과 개입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 반드시, p라고 알 때만, p라고 주장하라.
- 반드시, p라고 믿을 때만, p라고 주장하라.
- 반드시, p가 참일 때만, p라고 주장하라.
- 주장이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를 제시하는 일에 개입

모든 서술 행위 사례가 지녀야 하므로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자연스럽다. 한편 행크스가 좁은 의미의 주장을 말할 때도 있다. 행크스는 취소된 서술이 잃는 정상적 요건과 귀결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주장 일반이 갖는 요건과 귀결이라기보다는, 좁은 의미의 주장을 어떻게 개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에서 제시된 규칙과 개입들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술 행위가 무시될 때 좁은 의미의 주장 지위를 어떻게 잃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논의하겠다.

- 주장한 사람의 권위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개입

서술 행위가 무시되면 위 규칙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위 개입들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우선 규칙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행크스가 이미 제시했던 체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행크스는 체스 게임 도중에 한 참가자가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나이트를 움직이게 되면 이 움직임이 체스의 한 수로 간주되지 않는 예를 제시했다. 이 예는 나이트를 움직이는 행위가 게임 참여자들에게 무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을 움직이는 행위는 무시됨으로써 더는 체스 게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지 않고, 체스와 관련된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이트를 움직이는 행위가 체스의 한 수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술 행위가 무시되면 좁은 의미의 주장과 관련된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입들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무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화자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서술 행위가 모두에게 무시된다면, 그 서술 행위가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서술 행위를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행위자 본인이 이 행위를 무시하므로 자신이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그 행위가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를 제시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 서술 행위를 무시하므로 그 서술 행위에 기초한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따라서 그 행위에 기초해서 주장을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서술 행위가 무시된다면 이 서술 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받는 개입에 관여할 수가 없어진다.

위에서 제시된 규칙과 개입들은 언화 행위의 일종인 주장, 즉 좁은 의미의

주장을 어떻게 개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들에서 무엇이 주장인지를 정의해 주는 기준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규칙이나 개입이다.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 중에는 주장이 특정한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론들과, 주장이 특정한 개입을 지닌다는 이론들이 있다(Brown and Cappelen 2011). 두 부류의 이론이 주장에 대한 이론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표적인 이론들에서 무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위 논의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이론들 중 하나를 따른다면 서술 행위가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거나, 개입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서술 행위가 좁은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들에서 무시된 서술 행위는 좁은 의미의 주장의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단과 관련하여, 무시된 서술 행위가 좁은 의미의 판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서술 행위가 적절한 증거나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심적 행위 가운데서 좁은 의미의 판단을 구별해 주는 특징으로서, 행위자가 가진 증거나 이유에 기초해서 이뤄진 심적 행위라는 점을 들 수 있다(Reiland 2019b, 226). 이러한 특징으로 좁은 의미의 판단을 정의하면, 증거나 이유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증거나 이유에 대한 고려가 서술 행위가 일어나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 좁은 의미의 판단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에서 좁은 의미의 판단이 될 수 없는 경우 역시 무시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다음 유비를 고려하자. 신도시를 계획하는 설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축 예정인 특정한 건물 하나를 계획에서 무시하고 있다고 하자. 그는 이 건물이 들어오는 부지를 아무 건물도 없는 빈땅처럼 취급한다. 따라서 설계자는 이 부지에 건물이 운영되기에 적절한 상하수도 시설을 놓지 않고,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완공된 건물에는 상하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수행될 서술 행위를 무시한다면 이 서술 행위가 좁은 의미의 판단이기 위해 필요한 증거나 이유에 대한 고려가 일어나지 않은 채 서술 행위를 수행하거나, 고려는 있지만 이 고려가 서술 행위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무시된 서술 행위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다. 서술 행위가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입장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에 F를 서술하는 행위가 주장이나 판단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a가 F라는 입장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서술 행위는 분류 행위의 일종이고, 입장을 택하는 행위는 분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행위다. 입장을 택할 때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행동을 통해 수행되는 분류 행위에서 잘 드러난다. 행크스는 대리석을 녹색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 예에서 행위자는 대리석 하나를 집어든 다음 녹색인지 여부에 따라 이 대리석을 녹색 대리석 더미에 놓거나, 나머지 대리석 더미에 놓는다. 이때 행위자는 집어든 대리석을 어느 더미에 놓는지에 따라 이 대리석이 녹색인지 여부에 대해 한 입장을 택하게 된다. 만약 집어든 대리석을 두 대리석 더미 중 어느 쪽에도 놓지 않는다면 행위자는 대리석이 녹색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택하지 않고, 분류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서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입장을 택해야 한다면, 무시된 서술 행위 또한 서술 행위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입장을 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논의를 바탕으로 취소된 서술을 무시된 서술로 이해할 때 취소된 서술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취소 반대 논증 중 어느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취소 반대 논증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취소 맥락 C에서,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하는 행위를 수행했고, a는 F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로부터 다음 각 단계가 따라 나온다.

1*.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1*.에 의해)

3*. 맥락 C에서 S는 실수를 저질렀다. (2*.에 의해)

4*.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는 입장을 취했음에 틀림없다. (3*.에 의해)

5*.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고 주장했음에 틀림없다. (4*.에 의해)

6*. 맥락 C에서 S의 주장 행위는 취소되지 않았다. (5*.에 의해)[2]

주장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했으므로 위 논증도 이에 맞춰 재해석할 수 있다. 5*, 6*단계의 '주장'을 좁은 의미의 주장으로 해석한다면 앞 단계들과 달리 5*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주장이기 위해서는 a가 F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특정한 규칙이나 개입에 지배를 받거나 관여해야 하는데 무시 받는 서술은 그러지 못한다.

한편 5*, 6* 단계의 '주장'을 넓은 의미의 주장으로 해석한다면 5*단계는 성립하지만 6*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S가 a가 F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개입을 한 것만으로 S가 a가 F라는 넓은 의미의 주장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5*단계는 성립한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의미의 주장인 서술 행위는 무시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이 서술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 이런 뜻에서 S의 행위는 넓은 의미의 주장이면서도 무시되어 취소된 행위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무시된 서술이 좁은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거나 일상적 귀결을 지니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무시된 서술을 하는 사람은 입장을 취할 수 없고, 실수를 저지를 수 없으며, 무시된 서술 행위는 진리 조건이나 올바름 조건 또한 지니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서술 행위가 무시될 때도 넓은 의미의 주장으로 이해한 논증이 5*단계까지 성립하는가?

나는 앞 단계들은 행위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서술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사실들인 반면, 서술 행위가 좁은 의미의 주장이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 요건과 개입을 지니는지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서술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사실이라고

[2]이 논증은 (강진호 2017, 125)에서 인용했다. 논증의 각 단계를 표기하는 방법과 괄호의 종류를 이 글의 양식에 맞게 수정했다.

생각한다.[3] 무시되지 않을 때와 달리 무시되면 성립하지 않게 되는 사실이려면 그 사실이 성립하는 근거 중 무시되면서 달라지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시가 일어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은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 태도 등 무시하는 사람들의 서술 행위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사실이다. 따라서 행위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서술 행위에 대한 반응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사실이라면 이 사실은 서술 행위가 무시되더라도 성립한다.

주장을 넓은 의미로 이해할 때 1*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사실들은 행위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서술 행위에 대한 반응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따라서

---

[3]이러한 내 주장의 함축 중 하나는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가 여전히 진리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크스는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대사를 발화하는 행위 또한 취소 맥락 하에서 수행된 취소된 서술 행위라고 보았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배우의 발화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점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과연 무대에 선 배우의 발화가 진리치를 지니는지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강진호는 이미 행크스에 대해 취소 맥락에서 명제가 진리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120).

나는 행크스와 달리 연극 무대에 선 배우의 발화가 취소된 서술의 일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시된 서술 개념을 옹호한다고 해서 무대에 선 배우의 발화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귀결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극 무대에서 형성된 연극 맥락은 해당 맥락 하에서 수행된 행위가 일상적 귀결과 지위를 지니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취소 맥락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연극 맥락에는 취소 맥락에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나는 연극 맥락이 취소 맥락의 일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극에서는 어떤 행위와 그 행위를 특정한 측면에서 흉내낼 뿐인 행위가 둘 다 동일한 연기의 수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중 인물들이 입맞춤하는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배우들이 실제로 입맞춤할 수도 있지만, 입맞춤하는 동작과 유사해 보이게 흉내만 낼 뿐 실제로 입맞춤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서술 행위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예가 성립한다. 극 중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가 어떤 주장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자. 이 장면을 사람이 앵무새 탈을 쓰고 실제 주장을 함으로써 연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음성을 따라하도록 훈련 받은 앵무새가 연기할 수도 있다. 이때 배우인 앵무새가 소리 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를 통해 주장을 하진 않지만, 이 행동은 극 중 앵무새가 주장을 하는 모습의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취소 맥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고유한 현상이 나타나는 연극 맥락을 취소 맥락과 별개로 보고 설명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술 행위가 무시될 때에도 성립한다. 우선 분류 행위인 서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가 입장을 택해야 하므로 4*단계가 성립하고, 5*단계는 넓은 의미의 주장의 정의상 4*단계로부터 성립한다. 분류를 위한 규칙이 서술 행위의 올바름 조건을 결정하므로 2*단계가 성립하며, 1*단계와 3*단계는 이로부터 사소하게 성립한다.

반면 무시된 서술 행위는 행위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무시된 서술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서술 행위가 일상적으로 지니는 귀결들을 지니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 행위는 취소된 행위가 된다. 이는 한 개인의 심적 행위인 넓은 의미의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상적으로는 판단을 한 행위자가 이 판단에 근거하여 다른 판단을 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판단을 무시하면 행위자는 이러한 일을 의식적으로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행위자의 판단이 취소된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위자의 판단을 무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선언문으로 표현되는 어떤 판단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행위자가 내린 판단에 근거하여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다른 사람들이 행위자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내는 일에 성공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행위자가 선언지로 표현되는 넓은 의미의 판단을 했다는 점 또한 파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선언지가 표현하는 판단에 근거하여 어떤 행동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가 한 선언지가 표현하는 판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설명에서 취소된 서술은 여전히 입장을 택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프레게-기치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택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누군가가 “클린턴이 유창하거나, 바이든이 끈질기다”라는 선언문으로 표현되는 넓은 의미의 판단을 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클린턴이 유창하거나, 바이든이 끈질기다〉라는 서술 행위를 수행했고, 이를 위해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무시된 서술 행위와 〈바이든이

끈질기다〉는 무시된 서술 행위를 수행했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서술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클린턴이 유창하거나, 바이든이 끈질기다”는 입장을 택하지만, 클린턴이 유창한지 여부나 바이든이 끈질긴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시된 서술에 대한 앞선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무시된 서술을 수행할 때도 여전히 입장을 택한다. 따라서 무시된 서술인 클린턴에 유창함을 서술하는 행위와 바이든에 끈질김을 서술하는 행위를 수행할 때 우리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입장과 바이든이 끈질기다는 입장을 택한다. 이는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 보인다.

나는 입장을 택하는 행위와 특정한 입장인 상태를 구분하면 입장에 대한 이론의 예측이 왜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인 입장을 택하는 행위를 수행한 결과, 택한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살 때 우리는 OMR 카드에 기입하는 행위를 통해 특정한 숫자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 카드를 읽어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내가 특정한 숫자들을 선택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입장을 택한 결과 그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를 지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택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이는 입장을 택하는 행위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결과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인다. 로또 예에서 “네가 고른 번호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적절한 대답은 전산망에 등록된 숫자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답이다. 만약 OMR 카드를 작성했지만 전산망에는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카드에 기입한 숫자들은 앞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일반적으로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로또 번호가 당첨 번호인지에 관심을 가지며,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숫자들이 전산망에 등록이 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입장을 택할 때 그 사람이 택한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니게 되는 권리나 의무, 개입 등으로 인

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택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입장에 관한 우리의 직관도 입장에 관한 우리의 질문과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택한 입장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입장을 택한 결과 유지하는 상태에 관한 직관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택한 행위와 특정한 입장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P라는 판단을 수행함으로써 P라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P라는 서술이 무시된다면, 이 서술은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P라는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P라 입장을 택하는 행위는 이뤄졌지만, P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는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입장을 택하는 행위에서 택한 입장은 P라는 입장이지만,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택한 입장은 없다. 이론에서 예측하는 입장이 전자의 입장인 반면, 우리가 지닌 직관은 후자의 입장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무시의 예외

취소된 서술은 무시되어 일상적 귀결을 지니지 못하는 서술이지만, 이러한 무시가 항상 일어나서 서술이 모든 일상적 귀결을 항상 지니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취소가 애초에 일어난 서술 행위를 없애는 것이라는 취소에 관한 행크스의 초기 이론이 겪은 것과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선언문과 같은 복합문이 표현하는 서술 행위를 예로 들어 보자. 복합문이 표현하는 서술 행위에서 한 서술 행위는 다른 서술 행위의 서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는 짝수이거나 2는 홀수이다⟩란 명제는 ⟨2는 짝수이다⟩와 ⟨2는 홀수이다⟩란 명제에 ⟨-거나⟩라는 2항 관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적 이동(target-shifting)에 대해 행크스가 설명하듯(Hanks 2015, 99–100; 2019, 1396–7), 복합명제의 사례를 수행하는 인지 주체는 ⟨2는 짝수이다⟩의 사례와 ⟨2는 홀수이다⟩의 사례를 수행하고, 표적 이동이 일어나서 두 사례 각각의 유형인 ⟨2는 짝수이

다⟩와 ⟨2는 홀수이다⟩가 ⟨-거나⟩라는 2항 관계의 서술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이 인지 주체가 복합 명제의 사례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무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시가 일어나면 2항 관계의 서술 대상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인지 주체가 2항 관계를 대상에 서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인 서술 행위, 즉 ⟨2는 짝수이다⟩의 사례와 ⟨2는 홀수이다⟩의 사례를 수행한 인지 주체가 이 두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례들을 무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서술 대상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례가 특정한 사례라는 점에 근거해서 표적 이동을 해야 한다. ⟨2는 짝수이다⟩의 사례는 행위자가 2가 짝수라는 입장을 택하는 사례인데 이 점에 근거해서 해당 사례가 속한 적절한 유형을 서술 대상으로 집어내는 표적 이동이 일어나므로, 표적 이동이 일어날 때 ⟨2는 짝수이다⟩의 사례는 무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복합 명제 사례의 수행을 완료하면 행위자는 복합 명제 사례의 부분인 두 서술 사례, 즉 ⟨2는 짝수이다⟩의 사례와 ⟨2는 홀수이다⟩의 사례를 일반적으로 무시한다. 따라서 두 서술 사례는 일상적 귀결들을 지니지 못하고 판단이나 주장의 지위를 잃는다. 이를 통해, "2는 짝수이거나 2는 홀수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2는 짝수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예는 가언적 추론(hypothetical reasoning)에서 나타난다. $\sqrt{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가언적 추론을 보자.

1. (가정) $\sqrt{2}$가 유리수다.

2. (1.로부터) 서로소인 두 정수 a, b가 있어, $\sqrt{2} = a/b$이다.

⋮

n. (n-1.로부터) a, b는 둘 다 짝수다.

n+1. (2.와 n.으로부터) 모순이다.

n+2. (결론) $\sqrt{2}$가 유리수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러한 추론에서 우리는 $\sqrt{2}$가 유리수라는 가정(hypothesis)을 세운 후(1.)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논리적 귀결들을 얻는다(2.–n.). 그리고 가정의 논리적 귀결들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면(n+1.) 가정이 거짓이란 결론을 얻는다(n+2.). 행크스가 제안하듯, 이러한 추론에서 가정을 특수한 형태의 취소된 서술로 볼 수 있다(Hanks 2015, 111; 2019, 1400 n.15). 그런데 가정이 취소된 서술이라면 이 취소된 서술을 전적으로 무시된 서술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술이 전적으로 무시된다면 논리적 추론을 위해 고려되는 전제들 중 하나로서도 고려되지 않고 무시될 것이므로, 이 서술로부터 논리적 귀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이 서술을 제한적으로 무시되지 않은 서술이라고 본다면, 가언적 추론의 가정을 취소된 서술로 보면서도 취소된 서술이 무시된 서술이라는 이론을 유지할 수 있다. 가정은 가언적 추론을 위해 고려되는 전제들 중 하나로서는 일시적으로 무시되지 않지만, 다른 귀결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시된다. 따라서 판단이나 주장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3.4 레일란드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레일란드는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 또는 비중립적 서술 행위 대신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Reiland 2019a). 아울러 이러한 제안을 발전시키면서 나의 무시된 서술 개념에 제기될 수 있을 법한 두 가지 비판을 발전시킨 바 있다(148). 여기서는 레일란드의 두 비판에 대해 먼저 답변하고, 그의 대안에 비해 나의 대안이 더 우월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무시된 서술 개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첫째 비판은 무시된 서술을 통한 설명이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수행된 서술이 판단이나 주장일 때는 무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판단이나 주장이 아닐 때는 무시가 일어난다고만

단순히 설명한다면, 이는 왜 무시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설명 없이 임시변통으로 어떻게 판단이나 주장이 아닌 서술이 수행되는지를 둘러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는 취소된 서술이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행크스가 제시했던 대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취소된 서술을 무시된 서술로 보는 경우에도 행크스가 제시한 대답의 요지를 여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크스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의 예와 미식축구의 예 등을 제시한 후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 이러한 사례들 사이의 유사성을 끌어낼 때의 요지 중 하나는 취소가 언어적 현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또는'과 '만약'을 사용하여 발생된 취소 맥락은 좀 더 일반적인 어떤 것의 특별한 사례다. ····· 이러한 취소 맥락에 대한 호소는 명제가 서술 행위의 유형이라는 이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변통이 아니다. 내가 선언문과 조건문을 다루기 위해 취소를 창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다고 생각되는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있으며, 선언문과 조건문에 관련된 사실들을 이러한 현상의 예들로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Hanks 2019, 1392–3)

행크스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취소 현상이 명제와 관련된 현상에서도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취소된 서술과 관련된 예들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고, 최선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화되므로 취소된 서술과 관련된 예들에서 취소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시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무시가 명제와 관련된 현상에서도 일어난다고 볼 때 취소된 서술과 관련된 예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나는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보다 취소된 서술과 관련된 예들을 더 잘 설명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시를 통한 설명을 옹호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시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해서 무시를 통한 설명을 기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시된 서술 개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둘째 비판은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누군가가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 행위 유형의 사례다.

$\vdash_{\uparrow}$⟨~$\vdash$⟨**클린턴**, 유창함⟩, 참이 아님⟩

이 사례를 수행하는 사람은 우선, 클린턴에 ⟨유창함⟩을 서술함으로써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입장을 택한다. 다음으로, 이 서술 행위의 유형에 ⟨참이 아님⟩을 서술함으로써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택한다. 물론 클린턴에 ⟨유창함⟩을 서술하는 행위는 취소 맥락에 놓이므로 무시된다. 그렇지만 서술 행위는 무시되더라도 비중립성을 잃지 않으며 이 사례를 수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입장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입장을 택하면서,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택해야 하는 비일관성을 나타내야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나는 복합 서술을 하는 행위자가 어떤 입장과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모두 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선, 행위자는 하나의 서술 행위를 수행하여 반대되는 두 입장을 한 번에 택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두 개의 서술 행위를 수행했고 두 행위 각각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택하는 행위다. 한 인지 주체가 수행한 행위들이나 지닌 상태들 등의 입장이 상반되는 이러한 비일관성을 우리는 이미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취소 맥락에 놓인 서술 행위는 무시되므로 이러한 서술 행위를 통해 입장을 택했다는 점 역시 무시된다. 따라서 비일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귀결들이 이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개별 행위 각각을 수행함으로써 택한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려 한다면, 무시된 서

술 행위를 통해 택한 입장(위 예에서,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입장)은 무시가 되고, 무시된 서술 행위에 대하여 수행된 서술 행위(위 예에서, 〈참이 아님〉을 서술하는 행위)를 통해 택한 입장(위 예에서,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만이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제3의 행위를 통한 레일란드의 대안과 무시된 서술 개념을 통한 나의 대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개념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에 맞서 나는 취소된 서술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취소된 서술을 포기하면서 대신 행크스의 명제 이론의 다른 핵심을 유지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안에서는 행크스의 중립성 반대 논증에 따라 서술 행위가 비중립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비중립적인 서술 행위가 곧 판단이나 주장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대신 취소된 서술 개념을 포기하고 프레게-기치 요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소된 서술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종류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 행위는 중립적이고 비개입적이며 서술 행위와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서술은 아닌 행위다. 행크스의 비중립적 서술이나 솜즈의 중립적 서술이 아닌 제3의 행위를 통해 프레게-기치 요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론을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이라 부를 수 있다. 만약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이 가능하고 이 대안이 서술과 관련된 현상들을 무시 개념을 통한 새로운 대안보다 더 잘 설명한다면 이는 무시된 서술 개념을 통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의 예로 레일란드의 이론을 들 수 있다. 레일란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판단을 대상으로서 파악할(grasp) 수 있고, 프레게-기치 요점의 사례들이 주장이나 판단을 파악하는 행위를 수행한 사례들이라고 주장한다(Reiland 2019a, 150–4). 이 설명에서는 서술을 파악하는 행위가 취소된 서술 행위를 대신한다. 파악하는 행위는 서술 행위와 달리 진리 조건을 지니지 않지만, 파악의 대상이 서술 행위라는 점에서 서술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는 무시 개념을 통한 대안이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보다 전건 긍정인 추론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행크스가 취소된 서술을 통해 프레게-기치 논점을 설명할 때 전건 긍정인 추론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바 있으며(Hanks 2019, 1396), 무시 개념을 통한 대안 또한 취소된 서술 개념을 유지하므로 마찬가지 장점을 지니게 된다. 첫째 전제는 "만약 클린턴이 유창하다면, 바이든이 끈질기다"라는 판단이고, 둘째 전제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판단이며, 결론은 "바이든이 끈질기다"라는 판단인 추론을 생각해 보자. 이 추론의 형식이 전건 긍정으로서 타당한 추론이 되려면 첫째 전제의 전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과 둘째 전제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취소된 서술을 통한 행크스의 원래 설명에서는 이 둘이 동일하게 클린턴에 ⟨유창함⟩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의 사례이지만, 둘 중 하나는 취소 맥락에 놓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 맥락에 놓이지 않을 뿐이다. 무시 개념을 통한 대안에서 이것은 한 행위 사례는 무시되고 다른 행위 사례는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에서는 두 행위가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다. 첫째 전제의 전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둘째 전제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을 대상으로서 파악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대상으로서 파악하는 행위를 수행할 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설명이 없다면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에 따르면 위 추론은 형식이 전건 긍정인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물론 전건 긍정인 추론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이 주어진다면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에서도 위 추론을 전건 긍정인 타당한 추론으로 볼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전승태 (2017)가 그러한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어쨌든 적어도 제3의 행위를 통한 대안은 무시 개념을 통한 대안과 달리 전건 긍정인 추론에 관한 설득력 있는 새로운 설명을 제시해야 할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무시 개념을 통한 대안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결 론

취소 반대 논증과 진리치 논증에 따르면 취소된 서술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속성들을 지녀서, 결국 취소된 서술 행위는 주장이며 취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나온다. 이를 피하려면 취소된 서술 행위가 취소됨으로써 지니지 않게 되는 속성과 유지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취소된 서술에 대한 행크스의 이론에는 취소된 서술 행위가 유지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의 차이를 설명할 자원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다.

나는 무시된 서술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취소된 서술을 무시된 서술로 봄으로써 서술 행위가 취소 맥락에서 유지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다. 서술하는 행위자와 다른 사람들은 서술 행위 사례를 무시함으로써 이 서술 행위가 무시되지 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 행위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서술 행위에 대한 행위자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존하는 사실들은 서술 행위가 무시됨으로써 더는 성립하지 않는 반면, 반응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사실들은 서술 행위가 무시되어도 여전히 성립한다. 전자와 관련된 속성은 서술 행위가 무시될 때 잃는 속성인 반면, 후자와 관련된 속성은 서술 행위가 무시되어도 유지하는 속성이다.

나는 무시된 서술 행위가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지만,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은 행위자가 어떤 입장을 택하는 서술 행위인데, 행위자는 서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입장을 택해야 하므로 무시된 서술 행위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다. 특정한 분류의 언화 행위나 심적 행위로서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나 개입, 원인을 지녀야 하는데 서술 행위가 무시되어 이들을 지니지 못하기에 무시된 서술 행위는 좁은 의미의 주장 및 판단이 되지 못한다.

무시된 서술 개념을 도입한 내 이론이 성공적이라면 이는 서술 행위의 비중립적인 본성에 관한 행크스의 주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취소된 서술을 통해 프레게-기치 요점을 설명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서술 행위를 분류 행위의 일종으로 보면서 이 행위의 비중립적인 본성을 통해 이 행위가 어떻게 진리 조건을 지니는지 설명하는 행크스의 논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서술 행위의 본성에 대한 행크스의 설명은 프레게-기치 요점과 충돌한다는 문제를 겪는다. 행크스는 취소된 서술 개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서술 행위가 때에 따라서는 중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허용함으로써 행크스가 제시한 이론의 일관성을 떨어트린다. 무시된 서술 개념을 도입한 내 이론은 취소된 서술을 통해 행크스가 설명하려고 했던 현상을 마찬가지로 설명해내면서도, 무시된 서술로서의 취소된 서술이 여전히 비중립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서술 행위의 본성에 관한 행크스의 설명을 온전히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남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시된 서술은 진리치를 지니는데, 연극 무대에서 형성된 연극 맥락이 취소 맥락의 일종이라면 무대에 선 배우의 발화 또한 진리치를 지니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연극 맥락이 취소 맥락의 일종이 아닌 고유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며 배우의 발화에 관한 설명 또한 무시된 서술과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1] 연극 맥락과 취소 맥락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째서 둘이 다른 맥락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나는 무시된 서술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입장을 택한다는 이론의 예측이 이 행위자가 입장을 택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을 선택하

[1]이 글의 제3장 주석 4번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는 행위로서 주장과 이 행위를 한 결과 얻는 상태로서 믿음을 구분하고 무시된 서술 행위일 때는 주장이 믿음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진호. 2017. “행위 유형 명제 이론과 서술 행위의 본성.” 『철학적 분석』 38호:109–129.

국립국어원. 2020. “무시[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년 7월 16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이승택. 2019. “취소된 서술 행위와 표적 이동.” 『논리연구』 22집 2호:309–332.

전승태. 2017. “내용-효력 구분의 폐기와 프레게-기치 문제.” 『철학연구』 116집:309–332.

Brown, Jessica, and Herman Cappelen. 2011. “Assertion: An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Assertion: New Philosophical Essays,* edited by Jessica Brown and Herman Cappelen, 1–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rege, Gottlob. (1892) 1997. “On Sinn and Bedeutung.” In *The Frege Reader,* edited by Michael Beaney, 151–71.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1918) 1997. “Thought.” In *The Frege Reader,* edited by Michael Beaney, 325–45.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1923) 1984. “Compound Thoughts.” In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edited by Brian McGuinness, 390–406. Oxford: Basil Blackwell.

Geach, P. T. 1965. "Assertion." *Philosophical Review* 74 (4): 449–465. Reprinted in "8.2. Assertion." In *Logic Matters,* 254–269. Oxford: Basil Blackwell, 1972.

Green, Mitchell S. 2018. "A Refinement and Defense of the Force/Content Distinction." In *New Work on Speech Acts,* edited by Daniel Fogal, Daniel W. Harris, and Matt Moss, 99–12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nks, Peter. 2002. "The Unity of the Proposition."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2011. "Structured Propositions as Types." *Mind* 120 (477): 11–52.

———. 2015. *Propositional Cont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9. "On Cancellation." *Synthese* 196:1385–1402.

Hom, Christopher, and Jeremy Schwartz. 2013. "Unity and the Frege–Geach Problem." *Philosophical Studies* 163:15–24.

Jespersen, Bjørn. 2012. "Recent Work on Structured Meaning and Propositional Unity." *Philosophy Compass* 7 (9): 620–630.

King, Jeffrey C. 2007. *The Nature and Structure of Cont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09. "Questions of Unit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09:257–277.

———. 2014. “What Role Do Propositions Play in Our Theories?” In *New Thinking about Propositions,* by Jeffrey C. King, Scott Soames, and Jeff Speaks, 5–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9. “Structured Propositions.”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9, edited by Edward N. Zalta.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9/entries/propositions-structured/.

McGrath, Matthew, and Devin Frank. 2018. “Propositions.”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8, edited by Edward N. Zalta.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8/entries/propositions/.

Merricks, Trenton. 2015. *Proposi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iland, Indrek. 2013. “Propositional Attitudes and Mental Acts.” *Thought: A Journal of Philosophy* 1 (3): 239–245.

———. 2019a. “Predication and the Frege–Geach Problem.” *Philosophical Studies* 176:141–159.

———. 2019b. “Predication and Two Concepts of Judgment.” In *The Act and Object of Judgment: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edited by Brian Ball and Christoph Schuringa, 217–233. New York: Routledge.

Russell, Bertrand. 1903. *The Principles of Mathe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ames, Scott. 2010. *What Is Mean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14a. "Clarifying and Improving the Cognitive Theory." In *New Thinking about Propositions,* by Jeffrey C. King, Scott Soames, and Jeff Speaks, 226–24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4b. "Cognitive Propositions." In *New Thinking about Propositions,* by Jeffrey C. King, Scott Soames, and Jeff Speaks, 91–1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4c. "Why the Traditional Conceptions of Propositions Can't Be Correct." In *New Thinking about Propositions,* by Jeffrey C. King, Scott Soames, and Jeff Speaks, 25–4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5. *Rethinking Language, Mind, and Mean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alnaker, Robert. 1984. *Inquiry.* Cambridge: The MIT Press.

Abstract

Cancelled Predication as Ignored Predication

– A Criticism of Hanks's Act-Type Theory of Propositions, and a New Alternative –

LIM Sangmoo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ter Hanks and Scott Soames proposed the act-type theory of propositions, in which propositions are types of cognitive acts performed by cognitive subjects. For example, in a simple case, the proposition that Mars is red is the type of action predicating redness on Mars. However, Hanks and Soames take different positions on the nature of predication. Hanks claims that the act of predication is non-neutral, but Soames claims that it is neutral. To criticize Soames, Hanks presents a so-called "argument against neutrality," which shows that truth-evaluable and pure acts of predication are non-neutral.

However, Hanks's claim that the act of predication is non-neutral raises a problem with the Frege-Geach point. Hanks argues that a non-neutral act of predication is generally an act of assertion or judgment. Then, for example, when we assert a conditional, the acts of predication corresponding to the antecedent and consequent are performed, so the antecedent and consequent must also be asserted because these acts of predication are non-neutral. But it is not the case. To solve the problem, Hanks introduces the notion of cancelled predication. A "cancelled predication" is an act of predication performed in a cancellation context. In the cancellation context, the act of predication does not have the usual consequences and status. In particular, the cancelled act of predication is neutral and is not an assertion or a judgment.

Nevertheless, th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argument against neutrality can also be applied to cancelled predications. Hanks gives reasons why the argument against neutrality cannot be applied to cancelled predications, but these reasons are less convincing. If the argument against neutrality is applied to a cancelled predication, the conclusion follows that the cancelled predication is non-neutral. This contradicts Hanks's claim that the cancelled predication is neutral. Since the notion of non-neutra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notion of assertion, it also follows that the cancelled predication is still an assertion. That is, no cancellation occurs.

I provide a new explanation for the cancelled predication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ignoration. Through this, I show which step does not hold in the argument that cancellation does not occur because cancelled predications are assertions. According to the new theory, a cancelled predication is an act of predication that is ignored by the subject and others. When ignoration occurs, the ignored object retains certain properties, but some properties are

lost due to ignoration. I argue that, in the former case, the ignored object has these properties independent of the reactions of the subject and others to it, whereas in the latter case, the ignored object has these properties depending on the reactions of the subject and others to it. Based on these differences, I argue that the ignored predication is an "assertion or judgment in a broad sense" that maintains a non-neutrality but loses properties necessary to be an "assertion or judgment in a narrow sense," which is one of the specific categories of speech or mental acts.

Keywords: act-type theory of propositions, cancelled predication, cancellation context, the argument against neutrality, ignored predication, Peter Hanks

Student Number: 2014-22256